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명 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국어교과서 속의
여성 인물 재현 양상 연구

- 제7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2009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이 하 영

국어교과서 속의
여성 인물 재현 양상 연구
- 제7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김 명 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이 하 영

논문개요

본 논문은 양성평등적 관점에 기반을 두어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재현 양상을 분석 연구하였다. 교과서는 당대의 교육이 실현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며 그것이 확대와 재생산의 방식을 거쳐 사회구성원의 의식에 오래도록 잔존한다는 점에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특히 국어 교과서는 문학작품을 통해 작가의 눈으로 걸러진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데 그 세계가 왜곡되거나 특정한 성향의 문학작품으로 점철되었을 경우에는 교과서를 대하는 학생들의 세계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점에서 이 연구는 중등학교 국어 교과서가 얼마나 양성평등적인 관점에 부합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텍스트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제7차 중학교 국어교과서 속의 문학 단원의 한국 현대 산문 작품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저자의 성비에서 남성 저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등장인물 간의 남녀의 비율도 차이가 컸다. 등장인물의 출현 장소와 직업과 관련하여서도 교과서를 살펴본 결과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양산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다. 이러한 양적이고 통계적인 측면 이외에도 교과서에 등장하는 여성인물의 유형이나 재현 양상을 살펴보면 여성은 남성중심적인 시선에서 타자화된, 응시되어 지고 있는 인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 점이 아쉬웠다.

제7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가 이전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비하여서는 질적이나 양적으로 양성평등적 관점의 수용의 폭이 넓어졌지만 여전히 현실에서 요구하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상의 반영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교과서의 수록 부문에서 있어서만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날개나 각주 등 발문을 통한 본문의 재해석에 있어서도 특정한 고정관념이 반영되는 등 한계점이 보였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5
3. 연구 방법 및 범위	10
II. 이론적 배경	14
1. 양성 평등 교육의 의미	15
2. 국어 교육과 문학 교육의 목적	20
III. 교과서 구성과 성별 분석	25
1. 교과서 수록 텍스트의 저자 성별 분석	25
2. 등장인물과 남녀 비율	28
3. 여성 인물의 활동 공간과 사회적 역할	32
4. 양성평등교육을 위해 수록된 단원 분석	34
5. 발문에서 드러나는 양성평등 인식의 문제점	41
IV. 교과서에 재현된 여성상과 이데올로기	50
1. 긍정적인 여성상	52
1) 적극적 주체로서의 여성 주인공	53
2) 자기 반성적 성찰의 여성 주인공	59

2. 부정적인 여성상	64
1) 수동적·운명 순응적 여성 주인공	64
2) 이기적인 여성 주인공	74
3. 여성상의 부재 또는 주변화	78
1) 주변적 인물로서의 여성 주인공	78
2) 여성 인물의 부재	82
4. 여성상과 남성 이데올로기	84
1) 남성 중심적 시각 -유년기를 다룬 작품	84
2) 남성의 역사 -민족 수난과 극복을 다룬 작품	89
3) 남성이데올로기에 억압 받는 남성	94
V. 결론	104

참 고 문 헌

ABSTRACT

부록

I. 서론

1. 연구 목적

여성에게 공식적인 교육기회가 제공되기 시작한 이래 여성교육인구는 꾸준한 양적 확대를 이루어왔다. 그리고 여성교육인구의 양적 확대라는 결과만을 보고 우리 나라 교육에는 남녀 간에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존재하기도 한다.¹⁾ 그러나 여성 교육 신장의 질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여성 교육 수준은 아직도 만족할 단계가 아니다. 오히려 교육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졌다는 인식은 사회의 모순적인 면들을 은폐시키고 기존 지배체제의 유지를 더욱더 교묘하게 고착화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부르디에는 “교육제도는 계급관계의 구조를 재생산하면서도 중립적 태도를 표방함으로써 그것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은폐하기 때문에, 권력과 특권의 세습이 철저히 부정되는 사회에서 이보다 더 편리하면서도 말썽의 소지가 없는 제도는 없을 것이다”²⁾ 라며 학교가 문화적 재생산의 역할을 통하여 지배계급이 권력과 특권을 무리 없이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교육의 기능 중 하나가 현존의 지배질서를 공고히 하는 지식체계의 전승이라고 볼 때, 교과서는 아마도 가장 핵심적인 도구가 될 것이다. 교과서는 교육 가치가 있는 내용을 집약적으로 선정 조직한 매체이며 이때의 교육 가치는 국가나 교육 기관의 교육 목적과 목표를 반영한 것

1) 오재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교육의 방향에 대한 토론」, 『제7차 교육과정에서 양성 평등 교육 실현 방안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9.9.17.

2) Bourdieu, P. and Passeron, J. (1977), 『reproduction in educational society and culture』, sage publication, p.487~488. 김신일, 『교육사회학』, 교육과학사, 2007, p.396에서 재인용.

이기 때문이다.³⁾ 교과서는 개별 주체의 자발성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강제된 일종의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주체의 능동성과 자율성을 구속하는 억압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⁴⁾ 또한 교과서는 학습자들에게 가장 근접한 교육 도구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반복해서 교과서를 읽게 되고 교과서에 제시된 가치체계에 절대성과 정당성을 부여할 확률이 높다.

권성아는 학교교육에서 교과서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교과서의 중요성은 다른 교구에 비할 바가 아니다. 학생들은 이야기 속에 묘사된 사건을 상징적으로 경험하거나 스스로 연습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실생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사건의 결과를 결정하는 원칙과 똑같은 원칙이 책 속에서도 작용하는 것이라 생각하므로 학교 교육에서 교과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⁵⁾

김재춘·왕석순⁶⁾은 교과서에서 실제로 다루는 지식은 특정 시대의 특정 집단과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식체계이며, 그 결과 계층이나 성별의 상충되는 가치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유교적 전통에 의해 성차별이 의심의 여지없이 도덕윤리로 자리잡아왔기 때문에 양성 평등에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성차별이 교과서의 내용에 그대로 반영되어 재생산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한다. 더불어 만일 교과서가 특정 집단에 대한 왜곡된 고정관념을 제시할 때 학생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관하여 다

3) 허재영, 『국어과 교과서와 교재 지도 연구』, 한국문화사, 2006, p.18.

4) 강진호, 「국민 만들기」와 「국어」 교과서, 『국어 교과서와 국가 이데올로기』, 글누림, 2007, p.112.

5) 권성아, 「교과서와 아동의 성역할 사회화」, 『연구노트』 제8권 제4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1979.9, p.13.

6) 김재춘·왕석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양성 평등 교육 실현 방안」,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양성 평등 교육 실현 방안 탐색』, 1999.9.17, p.36.

음과 같은 자료를 인용하였다.

만일 교과서가 특정 집단에 대한 왜곡된 고정관념을 제시하면 학생들은 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McCune & Mathews(1978)는 미국의 백인과 흑인 아동들이 다문화적 관점을 가진 독서를 함으로써 흑인에 대한 좀 더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또 Shirley(1996)도 초등학교 1학년에서 5학년까지의 남녀아동에게 비전통적인 직업에서 성차별성과 성공적으로 투쟁하여 승리한 인물을 다룬 책을 읽은 후, 직업과 사회활동에서의 성 고정 관념적 태도가 경감되었다고 보고를 한 바 있다.⁷⁾

이와 같이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그리고 인간의 언어발달과 정서함양에 초점을 두고 있는 국어 교과서 또한 그러한 논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어 교과는 도구적인 면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도 가지고 있어서 국어 교과서는 다른 교과와 학습을 위한 도구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국어 문화의 창조와 전수라는 독특한 기능을 함께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⁸⁾

더군다나 국어 교과서가 다루는 문학교육이란 것이 문학의 이해와 감상뿐만 아니라, 문학작품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정서의 함양까지 다루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국어 교과서의 문학작품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⁹⁾ 특히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문학

7) Stitt, B.A, Building Gender Fairness in Schools, Board of Trustees,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1998.

김재춘·왕석순, 위의 글, p.36에서 재인용.

8) 실제로 근대계몽기 이후 국어과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에 비해 국가 차원의 교육 이념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특히 국가 체제가 변화하거나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 이념과 정책이 바뀔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 양상이 교과서에 반영된다.....(중략).....건국기의 교과서에서 『중등국어교본』에 실린 좌익계 작가들의 작품이 『중등국어』 ①~⑥(정부 수립 직후에 개발된 교과서)에서는 수록되지 않는 것 등은 국어과 교과서와 교육 이념의 관계를 잘 드러내 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허재영, 앞의 책 p.20.

교과서를 제외한 국어교과서의 대부분이 국정 교과서이므로 교육을 받는 사람이면 누구나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작품을 반복하여 읽게 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더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¹⁰⁾

실제로 차혜영에 따르면 한국인이 애송하는 시라든가 애독 작품의 목록은 교과서 작품, 교과서 문인의 작품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이는 문고본이나 전집류 등 대중 출판물의 목록과도 일치하는 바이다.¹¹⁾ 이와 같이 문학 교육에서 다루는 시와 소설은 대중들이 학교교육을 마친 이후에도 꾸준히 소비하고 향유하는 주요 장르라는 점에서, 학교에서의 문학 교육이 이후의 작품 선택 등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세상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학생들이 문학을 통해 세상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 된다는 점에서 학생들은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작품의 다양한 군상들을 현실적인 인물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많다. 만약 교과서에 다양한 형태의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고 편중된 인물들만 등장하거나 왜곡된 인물상이 반복해서 등장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인간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교과서 수록된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분석해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 논문에서는 제7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작품의 수록양상과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상에 대해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여성 등장인물들의

9) 박홍선, 「소설교육의 목적과 지도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p.2.

10) 교과서 편찬이 연구기관으로 이관 위촉되고 검인정 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편집자의 재량이나 문학교사의 자율권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교과서가 제도화되어 그 규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제도 차원에서 수행되는 구체적인 예이다.

우한용,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p.294.

11) 차혜영, 「한국 현대소설의 정전화 과정 연구」, 강진호 외, 『국어 교과서와 국어 이데올로기』, 글누림, 2007, p.282.

유형을 분석하여 교과서가 보여주고 있는 여성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고찰해보려고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국어 교과서를 분석한 논문을 중심으로 선행연구사를 검토하려 한다.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교과서를 살펴보는 연구는 중·고등학교 교과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초등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는 저학년일수록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 국어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 가운데 순수하게 국어과 영역만을 분석한 것은 전체 7편의 논문 중 4편이며, 나머지 3편의 논문은 국어교과서와 도덕교과서를 함께 연구했다. 이는 도덕교과서가 윤리라는 과목의 특성상 가치지향적인 내용을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성불평등적인 요소를 찾아내는 데 좀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연구자들의 판단이 개입되었으리라 본다.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연구한 것은 주로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활발해졌다. 그 중에서 국어교과서를 대상으로 연구한 것은 약 20편 정도로 1990년대 후반 이후 활발해진 연구 상황을 감안해볼 때 교과서의 양성평등에 대한 연구관심의 정도는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서신미¹²⁾는 제6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11편의 소설 중에서

12) 서신미, 「중학교 소설교재의 작중인물 연구: 여성주의적 비평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9편을 대상으로 주인공의 성별, 주제, 연령, 작중 인물의 성격 및 직업 등을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연구하였다. 다른 논문에서는 비교적 언급이 되지 않았던 주인공의 연령을 분석함으로써 삶의 모습의 다양성을 가늠하고자 한 시도가 돋보이며, 교과서에 남성 중심적인 가치관이 투영된 점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비판하고 있다.

이덕주¹³⁾는 제6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고전소설, 근·현대소설, 희곡 14편을 대상으로 여성인물의 등장 양상, 작품 내에서 여성인물의 비중과 위치, 역할 및 성격 유형과 등장인물 간의 성비를 살펴보았다. 특히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여중 3학년의 네 학급을 대상으로 설문¹⁴⁾을 실시해 학생들이 교과서에 실린 여성 인물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제로 조사함으로써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미향¹⁵⁾은 제6차 중학교 교과서와 고등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소설작품에서 드러나는 성차별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작가의 성비, 등장인물 중 역사적 인물의 성비, 삽화의 인물 성비 등을 기준으로 교과서를 검토할 때에는 고전과 현대작품을 모두 연구 범위에 넣고 총체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본론에서는 현대소설을 대상으로 하여 등장인물의 직업과 성비 외에도 주인공의 성별에 따라 소설의 주제가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는지, 여성 비하적인 발언이 얼마나 반복되어 나타나는지 다룸으로써 성차별적 요소를 자세하게 검토하고 있다.

13) 이덕주,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성차별적 요소 분석: 소설·희곡의 여성 등장 인물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4) 1999년 7월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소재 부학여중 3학년 네 학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덕주, 위의 글, p.8.

15) 이미향, 「중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성차별 연구: 현대소설 단원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이정례¹⁶⁾는 제6차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소설과 흥부전을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연구하였다. 저자의 성비 분석을 통해 교과서에 남성 저자의 편중 현상이 극심함을 비판하였으며 남성 중심 이데올로기가 작품의 주제를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끝으로 교과서에 드러난 남성상과 여성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아정¹⁷⁾은 제 7차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소설 작품 13편을 대상으로 등장인물의 성비, 여성인물의 성격 및 역할, 등장 양상에 대해 연구하였다. 문학작품이 여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알아내기 위해 설문조사¹⁸⁾를 해서 그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해방 이후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소설작품의 목록을 정리한 점은 의의가 있으나 논거의 기준이 다른 논문에 비해 다양하지 않았다는 점이 다소 아쉽다.

장순심¹⁹⁾은 제7차 고등학교 교과서를 여성주의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고전과 현대작품에서 드러나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시선을 탐구하고 교과서의 여성상에 반영된 이데올로기를 성 이데올로기, 정절 이데올로기, 모성 이데올로기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여성등장인물의 출현양상을 총체적으로 살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심혜원²⁰⁾은 제7차 중학교 국어교과서의 현대소설을 대상으로 주인

16) 이정례,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 제6차 교육과정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7) 정아정, 「현행 중학교 교과서 수록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3.

18) 2002년 9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 삼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정아정, 위의 글, 2003. pp.22-30.

19) 장순심,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국어 교과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20) 심혜원, 「제7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 소설 작품에 나타난 인물의 성역할 분석」,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공의 성역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다른 논문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등장인물의 관심사항을 연구한 것과 BSRI²¹⁾를 사용해 등장인물의 기질을 여성적, 남성적, 양성적 성격으로 구분하여 등장인물의 양성성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을 제기한 것에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연구자가 차용한 프로그램의 성별 특질을 구분하는 기준에서 여성적인 특질의 정의에 대한 깊은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²²⁾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여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재생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윤혜정²³⁾은 제5차, 6차, 7차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성차별 양상을 연구하였다. 소설과 희곡을 중심으로 고전작품과 현대작품을 연구하였는데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의 저자의 성비, 등장인물 성비, 등장인물의 출현 장소, 삽화 등 다양한 논거 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그 변화 양상을 통시적으로 연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현주²⁴⁾는 제7차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현대 소설 작품을 대상으로 여성 인물을 연구하였다. 여성 인물의 성격을 기준으로 교과서에 반영된 여성상을 절대적 모형을 지닌 어머니상, 타락하고 이기적인 신여성상, 전통적 관습의 여성상으로 유형화하여 작품을 분석하였다. 양성평등적 가치관 확립을 위한 대안으로 김유정의 「봄봄」을 대상으로

21) Bem이 그의 이론인 BSRI(bem sex role inventory)의 정립을 위하여 사용한 성격 특성 유목을 사용하였다. 심혜원, 위의 글, p.48.

22) 여성적인 성격 특성의 유목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 2) 쉽게 양보한다. 3) 협조적이다, 8) 수줍어 한다. 9) 양심적이다. 11) 사랑스럽다. 12) 어릿광대 노릇을 잘 한다. 13) 아첨한다. 18) 변덕스럽다. 23) 동정적이다. 심혜원, 위의 글, p.50.

23) 윤혜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성차별 양상」, 한국교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24) 정현주,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 소설의 여성 인물 연구: 양성평등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한 구체적인 수업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제적인 접근을 통해 양성 평등적 교육을 구현하려고 노력한 점은 의의가 있으나 등장인물의 성별에 따른 불균형에 대해 다양한 각도의 검토가 부족한 것이 아쉽다.

천정희²⁵⁾는 제7차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소설 15편을 대상으로 남성인물과 여성인물의 갈등 양상을 통한 양성 평등 교수 학습 방안을 연구하였다. 남성인물과 여성인물의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을 비교하여 여성 인물의 갈등 유형이 남성 인물에 비해 다양하지 않았고 인물의 성에 따라 갈등 해결 양상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른 연구들에서는 주목하지 않았던 주제로 교과서의 양성평등 측면을 연구한 점은 의의가 있으나 연구자가 텍스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랑 손님과 어머니」을 대상으로 만든 양성 평등 수업 계획안을 보면 제시된 ‘남성인물과 여성 인물간의 갈등 해결 방법을 비교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학습 유도 과정이 미미하다는 점이 아쉬웠다.

대부분의 연구는 교과서에 남성주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라는 의견에 일치했다. 그러나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대안의 제시가 피상적이었고 교과서를 통시적으로 살피기보다는 공시적으로 살핀 것이 많아서 교과서에 양성평등적인 관점의 반영양상이 정확히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기 어려웠다. 여성등장인물의 유형화에 있어서도 여성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기존의 문제적 시각을 별다른 비판의식 없이 그대로 수용하여 여성을 단순하게 유형화한 점이 아쉽다.

하지만 고무적인 면도 많다. 점차 논거 기준²⁶⁾이 다양해지고 연구

25) 천정희, 「남성인물과 여성인물의 갈등 양상을 통한 양성평등 교수-학습 방안: 중학교 교과서의 소설 작품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26) 성차별 위주의 분석에서 성역할, 인물간의 갈등과 같은 다양하고도 세부적인 초점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순히 작가의 성비나 등장인물 간의 성비, 작품에서의 비중을 따지는 것을 넘어서서 주인공의 연령 분석, 삽화에서 드러나는 고정관념을 살펴보는 등 차별 양상의 기준이 다양해지고 있다.

범위가 확대²⁷⁾되며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조사하는 등 교과서의 양성평등관점의 수용에 대해 다양하고도 치밀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또한 교과서의 분석에만 그치지 않고 「봄봄」²⁸⁾이나 「사랑 손님과 어머니」²⁹⁾와 같은 작품을 선정하여 양성평등의식 교육을 실현하는 수업모형을 제시함으로써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양성 평등 관점에 기반을 둔 교과서 연구가 진일보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3. 연구 방법 및 범위

이 논문에서는 제7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양성평등적 관점으로 연구해보고자 한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제1차부터 제 7차의 국어 교과서를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는 것이겠지만 연구의 양이 방대하여 여기에서는 제7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문학 단원에 수록된 소설·희곡·수필 등의 한국 현대 산문 작품만을 대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다.

교과서의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문학이 현실을 총체적으로 재구성 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작중 인물의 행동과 언어에 학생들의 동일화가 쉽게 이루어지리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산문 문학 작품 중에서도 고전 작품을 현대 작품과 같은 수준에서 양성 평등 관점으로 분석하는 것은 자칫 치중된 분석과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점

27) 윤혜정은 다양한 논거 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제5차부터 제7차까지의 교과서를 통시적으로 바라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28) 정현주,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 소설의 여성 인물 연구: 양성평등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29) 천정희, 「남성인물과 여성인물의 갈등 양상을 통한 양성평등 교수-학습 방안: 중학교 교과서의 소설 작품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에서 현대의 삶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을 현대 문학 작품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였다.

다음은 이 논문에서 연구대상으로 하는 작품의 목차와 수록된 단원명이다.

학년-학기	대단원 명	단원 구성	제목
1-1	1. 문학의 즐거움	소단원 (3)	어린 날의 초상
		보충·심화	강아지 똥
	2. 읽기와 쓰기	소단원 (2)	어머니의 우산
		소단원 (3)	국물 이야기
		보충·심화	한 눈 없는 어머니
	3. 문학과 의사소통	소단원 (2)	현이의 연극
	5.삶과 갈등	소단원 (1)	소설 동의보감
		소단원 (2)	육체미 소동
		보충·심화	바람을 파는 소년
			병어리 삼룡이
	7.문학과 사회	소단원 (2)	30년 전의 그날
		소단원 (3)	옥상의 민들레꽃
1-2	1. 능동적으로 읽기	보충·심화	약을 팔지 않는 약사
	2. 문학의 아름다움	소단원 (2)	소나기
		보충·심화	요람기
			미리내
	6.문학과 독자	소단원 (1)	흰 종이 수업
소단원 (2)		숨쉬는 영정	
2-1	1. 감상하며 읽기	소단원 (3)	소음공해
	2. 어떻게 읽을까	소단원 (3)	축복 받은 성격
	4. 삶과 문학	소단원 (2)	기억 속의 들꽃
		보충·심화	늦깎이 학생, 나의 어머니
	6.작품 속의 말하는 이	소단원 (2)	사랑 손님과 어머니
		보충·심화	동백꽃

2-2	1. 작가와 작품	소단원 (1)	옥중에서 어머니께 올리는 글월
		소단원 (1)	상록수
		보충·심화	나의 슬픈 반생기 민들레의 연가
	3. 문학의 표현	소단원 (2)	들판에서
		생각 넓히기	‘혼불’은 나의 온 존재를 요구했습니다.
	5. 창작의 즐거움	소단원 (1)	딸에게 온 연애 편지
		소단원 (2)	비누인형
		보충·심화	연년생
	3-1	3. 독서와 사회	소단원 (2)
보충·심화			아홉 살 인생
			섬마을 아이들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4. 읽기와 토의		소단원 (2)	일레인 이야기
5. 읽기와 매체 활용		소단원 (2)	시집 가는 날
6. 한국 현대 문학의 흐름		소단원 (5)	운수 좋은 날
		보충·심화	동백꽃
	오발탄		
3-2	1. 창조적 문학체험	보충·심화	봄바람
	3. 작가의 개성	소단원 (1)	내 생애 가장 따뜻한 날들

Ⅱ단원 Ⅱ-1에서는 본격적 논의를 전개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을 다루면서 먼저 철학적 관점과 여성학적 관점에 기반을 두어 양성 평등의 의미에 대해서 탐색하고, 이를 근거로 양성 평등 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탐구해 보도록 하겠다. Ⅱ-2에서는 이 논문이 국어 교과서 중 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국어 교육과 문학 교육의 목적을 살펴보고 양성 평등교육과의 상관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Ⅲ단원에서는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먼

저 교과서에 수록된 텍스트의 저자 성비, 등장인물과 남녀의 비율, 여성 인물의 활동공간과 사회적 역할, 직업 등을 살피고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따로 편제된 단원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또한 각주나 날개 등 발문을 통한 작품의 재해석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 탐구할 것이다.

IV단원에서는 여성 인물을 적극적 주체로서의 여성 주인공, 자기 반성적 성찰의 여성 주인공, 수동적·운명 순응적인 여성, 이기적인 여성 주인공, 주변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여성으로 나누어 그러한 여성들이 등장하는 작품들을 유형화 하여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여성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 작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특정 주제와 대상을 다룬 교과서 수록 작품 속에서 남성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여성은 어떠한 식으로 그려지고 있는지 분석해 보겠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연구를 정리하여 연구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내용을 전개하려 한다.

II. 이론적 배경

양성평등적 관점을 수용하여 교과서 수록 문학작품을 살펴보려면 양성 평등 교육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짓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먼저 양성 평등의 의미에 대해 철학적 관점과 여성학적 관점에 기반을 두어 탐색해보겠다. 그런 뒤에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할 양성 평등 교육의 의미를 규정해보고자 한다.³⁰⁾

철학에서 평등은 한마디로 말하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것을 뜻한다. 이 평등의 기본 원칙에서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를 것을 강조하는 동일성의 원리와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할 것을 강조하는 적합성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다.³¹⁾ 이러한 평등의 원리를 양성 평등이라는 개념에 적용하면, 양성 평등이란 양성의 같은 점은 같게 대하고 다른 점은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 것을 뜻한다. 즉, ‘남녀가 인간으로서 평등하다’고 하는 말의 철학적 의미는 남녀가 지닌 비본질적인 특성에 있어서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을 뜻한다.³²⁾

여성론자들이 발전시킨 여성학적 관점에서의 양성 평등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남녀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하는 양성 평등의 동일성 모형³³⁾이 있고, 둘째,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를 종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양성 평등의 지배 타파 모형³⁴⁾이 있으

30) 김재춘·왕석순,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양성 평등 교육 실현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p.11.

31) 김재춘·왕석순, 위의 글, p.12.

32) 한명희, 「남녀평등과 교육」 여성학교재편집위원회편, 『여성학의 이론과 실제』,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7. 김재춘·왕석순, 위의 글, p.12에서 재인용.

33) 이 모형에서는 남성은 사회와 생산 영역을, 여성은 가정과 소비 영역을 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또는 자본주의적인 성별 분업 형식을 타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며, 셋째, 여성은 남성과 동일하게 대우 받아야 할뿐만 아니라 남성과 다른 특별 대우를 한시적으로 받아야 함을 의미하는 양성 평등의 이중 권리 모형³⁵⁾이 있다.³⁶⁾

1. 양성 평등 교육의 의미

양성 평등 교육의 의미는 양성 평등의 의미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의미가 동일하지는 않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철학적 관점과 여성학적 관점에서 살펴본 양성 평등의 논의를 배경으로 삼아 양성 평등 교육의 의미를 분석해 보겠다.

우선 양성 평등 교육의 의미를 규정하기에 앞서 양성평등교육의 두 가지 형태를 언급하겠다. 양성 평등의 두 가지 형태에는 성중립적 교육과 성에 민감한 교육이 있다.

Houston(1985)은 양성 평등한 교육으로서 성중립적인 교육에 관하여 논하면서, 세 가지 의미의 성 중립적인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교육영역 내에 생기는 성별 차이를 제거함으로써 성을 무시해 버리는 적극적인 시도를 하는 교육, 둘째, 성(gender)을 무시하고 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며 인식조차 하지 않으려는 교육, 셋째, 성편견으로부터 자유라는 의미에서 성중립적인 교육을 말한다.³⁷⁾

Martin은 양성평등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에서 성/젠더의 고려가 필요

34) 지배 타파 모형은 남녀의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여성에 대한 억압적인 구조와 불평등 체제를 타파하는 것이 양성 평등이라고 본다.

35) 양성 평등의 이중 권리 모형은 비대칭적인 권력 관계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여성의 특별 권리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36) 김재춘·왕석순, 위의 글, pp.13-16.

37) 조경원, 「양성 평등 실현을 위한 교육의 방향」,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양성 평등 교육 실현 방안 탐색』, 1999.9.17.

하다고 강조한다. 마틴에 의하면 성에 민감한 교육이란 교육상황에 미치는 성의 미묘한 여러 영향들을 고려하는 교육 전반을 의미한다. 이 입장은 어떻게 성을 무시하고 성차를 제거함으로써(또는 무시함으로써) 평등에 도달하기 보다는 성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평등에 도달하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 마틴은 성에 민감한 교육이 성 중립적인 교육을 포함하면서 한 단계 더 나간 교육이라고 주장한다.³⁸⁾

양성평등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교육의 기회만이 아니라 과정과 결과까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양성평등교육에는 성중립적 교육과 성에 민감한 교육이 모두 포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중립적 관점에서 접근한 양성평등교육의 결과 우리나라의 교육의 형식적인 성평등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양성평등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Martin의 성에 민감한(또는 성이 고려된)이 보다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본격적으로 양성평등교육의 개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살펴보면, 교육의 기회와 관련되는 교육정책과 과정의 측면에서 언급되는 것들과 교과서의 내용 구성에서 실현되는 측면의 것들이 있다.

먼저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구성 차원에서의 양성평등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초등학교의 양성평등한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에서는 교육의 정책과정 차원에서는 양성평등교육이 ‘교육의 과정에서 불평등한 요소를 없애고, 남녀 모두에게 동일한 교육기회와 내용을 제공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재춘·왕석순의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양성 평등 교육 실현 방안 연구³⁹⁾에서는 교육과정 차원에서의 양성평등개념을 ‘남녀 양성에게 똑같은 교육의 목적, 기회, 과정, 내용, 방법 등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며 이것을 소극적인 양성 평등교육의 차원에서 정의

38) 같은 곳.

39) 김재춘·왕석순, 앞의 글, pp.19-20.

내리고 있다.

교과서의 내용 구성에서 실현되는 양성평등교육을 살펴보면, ‘양성 평등 학교문화, 선생님이 만듭니다.⁴⁰⁾에서 ①양성 중 어느 특정 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고, ②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문화적 차이로 직결시키지 않으며, ③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현시켜 자신의 자유의지로 삶을 계획하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촉진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양성 평등한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교육 외에 두 가지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있다. 하나는 사회 제반에 스며있는 성편견과 불평등한 요소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비판의식을 길러주는 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남녀 양성이 동일한 학습 성취 또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교육상황에 미치는 성의 미묘한 여러 영향을 고려하는 성인지적(gender-sensitive)교육이다. 후에 자세히 언급할 김재춘·왕석순의 연구⁴¹⁾에서도 교과서 내용 구성차원에서 실현되는 양성평등교육을 언급하고 있는데 세 가지 양성평등교육의 정의를 살펴보면, 결국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양성 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한 학생들의 인지력 제고와 자각을 들고 있다. 공평한 교육 기회와 교과과정의 제공은 소극적 차원의 양성평등교육이고 궁극적인 양성 평등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의식을 개선하고 비판의식을 함양하는 것이다.

양성평등교육의 개념에 관하여는 많은 논의가 있지만 김재춘·왕석순이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양성 평등 교육 실현 방안 연구>에서 양성 평등 교육의 의미를 단계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그 특징과 의미

40)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연수자료 「양성평등 학교문화 선생님이 만듭니다」, 교육인적자원부, 1999, p.22.

41) 김재춘·왕석순, 앞의 글, pp.1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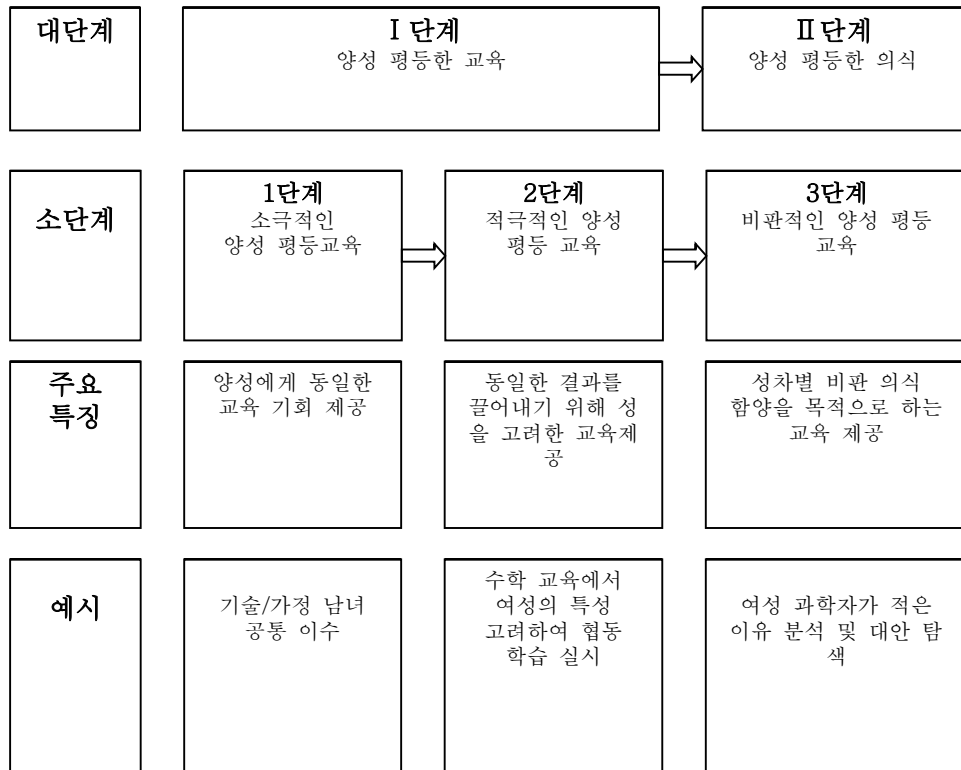
를 제일 명확하게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김재춘·왕석순이 제시한 양성평등교육의 개념을 수용하고자 한다.

김재춘·왕석순은 양성 평등 교육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의미를 지닌 것으로 규정한다. 양성 평등은 첫째, ‘양성 평등한 교육’을 의미하며, 둘째, ‘양성 평등 의식’을 뜻한다.⁴²⁾ 양성 평등 교육의 첫 번째 의미인 ‘양성 평등한 교육’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의미는 남녀 양성에게 똑같은 교육의 목적, 기회, 과정, 내용, 방법 등을 제공하는 ‘소극적인’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남녀 양성이 동일한 학습 성취/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활용하는 교육을 뜻하는 ‘적극적인’ 의미이다.

양성 평등 교육의 두 번째 의미인 ‘양성 평등 의식 교육’은 양성 평등한 교육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양성 평등한 사회 재건에 필요한 의식과 가치관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을 뜻한다.

다음은 양성 평등 교육의 다층적인 의미와 단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42) 김재춘·왕석순, 앞의 글, pp.19-20.



궁극적인 양성 평등의 지향점은 제3단계인 비판적인 양성 평등 교육이다. 하지만 모든 교과목의 수업 시간마다 제3단계에 이르는 양성 평등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하는 대단원과 소단원의 학습 목표 구현을 위해서는 우선은 그 단원에서 성취해야 할 목표에 주력해야 하고 각 단원마다 배당된 시간의 제약을 고려해보면 모든 수업에서 제3단계 수준의 양성 평등 교육을 실현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양성 평등한 의식의 교육으로 진보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교육 의미의 설정은 의의가 있어 보인다.

2. 국어 교육과 문학 교육의 목적

본 논문은 제 7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한국 현대 산문 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의 목표가 올바른 인간상의 정립에 있다면 양성 평등 의식을 가진 올바른 인간상을 정립하는 것 또한 교육의 목표에 내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논문은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국어과의 특수한 교육 목표와 더불어 문학 교육의 목표를 먼저 살필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어과의 교육 목표와 문학 교육의 목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의 국어과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제 7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의 마지막 학년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목표를 기준으로 국어과 교육 목표를 일원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국어 학습을 통해 도달해야 하는 지향점으로서의 국어과의 교육 목표는 다음의 표와 같다.⁴³⁾

43) 제7차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1-1, 교육인적자원부, 2004, p.23.

<국민 공통 기본 교과로서의 국어과의 교육 목표>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언어 활동의 맥락과 목적과 대상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가)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 사용 상황에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나)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 사용의 원리와 작용 양상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국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는 국어과의 지향점이 인지적 교육 내용으로서의 지식의 습득과 기능의 향상, 정의적 교육 내용으로서의 태도, 가치, 동기, 습관 등에 대한 학습을 균형 있게 하여 지적으로 성숙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균형 잡힌 한국인을 양성하는 데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⁴⁴⁾

문학과 관련되어서는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히는 것’ 그리고 문학에 대한 감상이나 비평을 표현할 때와 같은 ‘다양한 국어 사용 상황’에서 자신의 ‘사상과 정서를 잘 표현하는 것’이 국어과의 교육 목표에서 명시적으로 주어진 것들이라 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문학 교육의 목표에 관련하여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면 많은 논의가 축적된 것을 알 수 있다. 김수업⁴⁵⁾, 정구향⁴⁶⁾ 그리고 김이

44) 박영목·외, 『국어과 교수 학습론』, 교학사, 2001, p.45.

상⁴⁷⁾이 정의한 문학교육의 목표를 살펴보면 대체로 문학교육의 목표를 학생 개인의 입장에서 정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논지는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능력의 향상이 학생의 체험을 확장시키고 학생의 인간과 삶에 대한 이해력이 커짐에 따라 학생을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시킨다는 기본적인 맥락에서 동일하다.

반면 문학 교육의 목표를 학생 개인의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회적 차원에서도 고려하여 정의한 논의도 있는데 최현섭 외 6인의 『국어교육학개론』⁴⁸⁾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학 교육의 목적과 국어과 교육 과정 해설서에서 제시된 문학 과목의 목표가 그것이다. 먼저 『국어교육학개론』에서 제시된 문학 교육의 목표를 살펴보겠다.

『국어교육학개론』에서는 문학교육의 주요 목표로 문학적 문화의 고양, 상상력의 발달, 삶의 총체적 이해, 심미적 정서의 함양, 민족정서의 이해와 습득을 들고 있다.⁴⁹⁾ 특히 민족 정서의 이해와 습득에 관련해서는 문학교육이 국어과 교육의 일부 또는 그 하위 부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학교육은 필연적으로 ‘한국’ 문학교육이라는 데에 주안

45) 김수업이 정의 내린 문학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문학 교육의 목적은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예술의 말(문학의 말)이 발휘하는 신비로운 힘을 발견하고, 상상력을 훈련하여 키우고, 감동을 통하여 정서를 풍부히 기르게 되어 저절로 풍요로운 인간성을 갖춘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김수업, 「교육과정(국어과)의 내용·영역에 대하여」, 『모국어교육』 제2호, 모국어교육학회, 1984, p.31.

46) 정구향은 문학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첫째, 문학 이론의 기본 개념을 문학 작품에 적용하여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길러 준다. 둘째, 작자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의 체험 즉, 문학적 체험을 통하여 학생의 체험을 확장시킨다. 셋째, 학생을 문학적 체험에 참여시킴으로써 인간의 삶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길러 준다.
정구향, 「문학교육의 방안」, 『국어교육개발』 통권 34호, 1988, p.66.

47) 김이상이 제시한 문학 교육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학작품을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준다. 둘째, 삶의 총체적 경험을 넓혀 준다. 셋째, 바람직한 인간을 길러 준다.
김이상, 「문학교육론 소고」, 『어문학 교육』 제13집, 한국어문학회, 1991.5, p.81.

48) 최현섭 외, 『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2005.

49) 위의 책, pp.439-442.

을 두고 교육과정 내용이 구성·조직된다고 목표 설정 취지를 부연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국어과의 교육과정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학교육은 필연적으로 민족정서를 이해하고 창조한다는 목표를 내포하게 된다.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보게 될 제7차 교육과정에서 주어진 문학 교육의 목적에는 문학 현상의 중요한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존재하는 ‘공동체’나 ‘문화’와의 연관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⁵⁰⁾ 이는 아마도 ‘교육’이 가지고 있는 인위성이라는 본질적인 특성을 생각해 보았을 때 문학교육을 주관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필연적으로 설정하게 되는 목표라 할 수 있다.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고등 학교 ‘심화 선택’ 과목인 ‘문학’ 과목의 목표⁵¹⁾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제시했던 국어과의 교육 목표는 초등 학교 1학년부터 고등 학교 1학년까지를 포괄했지만 동일 범위에서 제시된 문학 과목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고등 학교의 선택 과목으로서의 ‘문학’ 과목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같음하려고 한다. 비록 이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것이 중학교 국어 교과서이지만 고등 학교 국어과 문학 과목의 목표가 중학교 문학 교육이나 국어과의 문학 교육의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여기에 신도록 하겠다.

고등 학교 ‘문학’ 과목의 목표는 ‘전문’과 영역별 목표로 구성하였다. 전문에서는 ‘문학’ 과목의 목표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영역별 목표에서는 학습의 주요 구성 요소인 지식, 수행 능력, 태도의 관점에서 필요한 목표를 분석적으로 제시하였다. 제7차 고등 학교 ‘문학’ 과목의 목표는 다음 표와 같다. ⁵²⁾

50)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론, 2007, p.23.

51) 박영목 외, 앞의 책, p42.

52) 박영목 외, 위의 책, p.45.

<고등 학교 ‘문학’ 과목의 목표>

문학의 수용과 창작 활동을 통하여 문학 능력을 길러, 자아를 실현하고 문학 문화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바람직한 인간을 기른다.

(가) 문학 활동의 기본 원리와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이해한다.

(나) 작품의 수용과 창작 활동을 함으로써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기른다.

(다)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세계를 이해하며, 문학의 가치를 자신의 삶으로 통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라) 문학의 가치와 전통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문학 문화 발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학교육의 여러 가지 논의를 참고하여 문학교육의 목표를 정리해보면 문학 작품의 올바른 이해와 감상, 문학적 체험을 통한 학생의 체험의 확장과 더불어 상상력과 창의성, 도덕성의 함양, 인간의 삶에 대한 가치의 이해와 공감능력의 향상, 민족정서의 이해와 습득을 들 수 있다.

Ⅲ. 교과서 구성과 성별 분석

이 단원에서는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의 저자 성비, 등장인물과 남녀의 비율, 여성 인물의 활동공간과 사회적 역할을 분석하고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따로 수록된 작품 「늦깎이 학생 나의 어머니」를 단원의 활동 취지 및 지도 방안, 학습활동에 제시된 학생의 시와 이 작품이 연계된 방식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겠다. 또한 각주나 날개 등 발문을 통한 작품의 재해석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 탐구해보겠다.

1. 교과서 수록 텍스트의 저자 성별 분석

먼저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의 저자의 성별 분포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작가의 성비를 따져서 그것만으로 교과서의 성격을 남성지배적 혹은 여성지배적이라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작가의 무의식이 작품에 반영된다는 전제 하에서 남성 작가의 글이 여성 작가의 글보다 보다 더 남성 중심으로 써졌을 거라는 가정은 자칫 여성이면서도 남성보다 더 남성 중심으로 글을 쓸 수 있는 여성작가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때문에 피상적인 접근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교과서 수록 작품의 작가의 성비의 차이가 심하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드러난 작가의 성비를 살펴보는 것은 나름 의의가 있다는 생각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제7차 중학교 국어교과서의 모든 단원을 대상으로 작가의 성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과서 본문에 수록된 작품들이 본문에 수록되지 않은 작품들보다 더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혹시 교과서 본문과 보충심화의 작

품들 간에 차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교과서 본문과 보충 심화·단원의 길잡이 등에 실린 작품들을 나누어서 작가의 성별 분포도를 살펴보고 그 뒤로는 총괄적으로 작가의 성별 분포도를 살펴보았다. 교과서 단위 별로 저자의 성비를 분석한 표는 <부록 1>에 수록하였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학년별, 구성별로 통계를 낸 표는 다음과 같다.

학년	구성	성별		
		남	여	불분명 ⁵³⁾
1학년	본문	28(70%)	5(12%)	7(17%)
	보충·심화 ⁵⁴⁾	35(61%)	11(19%)	11(19%)
	계	63(64%)	16(16%)	18(18%)
2학년	본문	17(68%)	1(4%)	7(28%)
	보충·심화	20(51%)	9(23%)	10(25%)
	계	37(57%)	10(15%)	17(26%)
3학년	본문	48(65%)	11(15%)	14(19%)
	보충·심화	44(67%)	4(6%)	17(26%)
	계	92(66%)	15(10%)	31(22%)
전학년	계	192(64%)	41(13%)	66(22%)

이를 살펴보면 남성 저자의 작품(64%)이 여성 작가의 작품(13%)에 비해 월등히 많으며, 성별이 불분명한 작품(22%)은 여성 작가의 작품(13%)보다 더 많이 실렸음을 알 수 있다.

본문과 보충·심화란에 실린 작품의 작가 성비를 살펴보면 남성 저자의 경우에는 본문에 실린 경우(93건)와 보충·심화란에 실린 경우(99건)의 비율이 비슷했으나, 여성 저자의 경우에는 본문에 실린 경우(17건)보다는 보충·심화란에 실린 경우(24건)의 비율이 더 높았다.

본 연구주제와 비슷한 주제로 교과서를 연구한 윤혜정⁵⁵⁾의 경우에

53) 고전작품 중 작자미상의 설화나 민요, 편집부나 집필진이 저자로 나와 있는 작품광고, 성별을 알 수 없는 학생작품 등을 ‘불분명’으로 분류하였다.

54) 본문과 구분하여 단원의 길잡이, 보충·심화, 읽기 전에, 생각 넓히기에 나오는 작품들을 ‘보충·심화’로 분류하였다.

는 제5차부터 제7차까지 교과서를 통시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저자의 성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비교적 정확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제 5차	제 6차	제 7차
남성	13(86.7%)	12(85.7%)	11(61.1%)
여성			
미상	2(13.3%)	2(14.3%)	3(16.7%)
계	15(100%)	14(100%)	18(100%)

윤혜정의 연구에 의하면 제7차 교육 과정의 국어 교과서에서는 그 이전의 교육과정의 교과서보다 소설, 희곡작품의 저자 중 여성작가의 비율이 점차 높아졌다. 그러나 그 비율의 양적인 측면을 떠나 질적인 측면을 따져보면 실제로 수업시간에 본문보다는 집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보충 심화란에 여성 작가의 비율이 더 높다. 이로써 전체적인 여성작가의 비율 상승이 실질적으로 작가의 성비 불균형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에 수록되는 여성 작가의 작품의 수의 증가가 느린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 문단에서 문학 작품의 평가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성 문학의 재평가와 재발견이 아직 미미한 상태인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 비문학 장르에서의 작가 선정은 작가 선별이 최근에 활동하고 있는 작가 뿐 아니라 기성의 작가들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예전에 활동했던 작가들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근본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작가를 선별해서 성비 균형을 맞추기 힘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55) 본 연구에서는 연구범위를 제 7차 중학교 교과서로 한정했기 때문에 통시적인 분석을 윤혜정의 논문에서 인용하면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소설, 희곡의 저자 중 여성의 비율은 제 5차~7차로 오면서 변화가 생기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작가의 성비의 불균형 문제는 심각해 보인다.
윤혜정, 앞의 글, p.13.

다만 여기에서는 그것을 일괄적으로 비판한다기보다는 작가의 성비 불균형의 문제를 지적하고 객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실태를 보여주는 데 취지가 있다.

2. 등장인물과 남녀 비율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학생들은 그 주인공에 동화되기 쉽다. 때문에 등장인물들은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어떠한 등장인물이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은 그 등장인물을 하나의 인간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점에서 등장인물의 성격은 중요하다. 되도록이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다양한 인물의 유형이 등장하는 것이 학생들의 성장과 세계관 형성에 도움이 된다. 또한 그러한 측면에서 등장인물의 성비가 불균형하지 않은 작품이 학생들의 교육적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 등장인물들의 유형을 성비의 비율로 살펴보는 것은 피상적일 수도 있지만 학생들은 문학작품의 등장인물을 통해 다양한 인물상들을 배우고 또한 성역할 모델을 찾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성격의 균형 잡힌 성비의 인물이 등장하는 작품이 가장 권장될 만하다고 하겠다. 그런 면에서 우선은 등장인물 중에서 중심인물과 기타인물의 성비의 비율을 살펴보겠다.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다른 연구들을 살펴보면 모든 등장인물의 성별을 따져 성비를 살펴보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등장인물 중에서 중심인물의 성을 중심으로 작품을 살펴보아 교과서 수록 작품들의 성별에 따른 인물 분포를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 작품 안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이야기의 흐름을 끌여가는 인물의 성비를 살펴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심인물⁵⁶⁾의 성별이 여성일 때와 남성일 때 그리고 중심인물이 남성과 여성일 때로 나누어 보았는데 대상작품 중에서 중심인물의 성이 불분명한 경우⁵⁷⁾와 특정한 중심인물을 꼽을 수 없는 경우⁵⁸⁾는 통계에 있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경우는 제외하고 본다.

	중심인물이 여성 중심인 작품	중심인물이 남성과 여성 중심인 작품	중심인물이 남성 중심인 작품
작품명	어린 날의 초상, 현이의 연극, 소음공해, 연년생, 상록수, 비누인형, 민들레의 연가, 일레인 이야기, 사랑 손님과 어머니, 늦깎이 학생 나의 어머니, 약을 팔지 않는 약사,	소나기, 기억 속의 들꽃, 동백꽃	국물이야기, 소설 동의보감, 육체미 소동, 바람을 파는 소년, 병어리 삼룡이, 30년 전의 그날, 옥상의 민들레꽃, 요람기, 미리내, 흰 종이수염, 숨쉬는 영정, 축복 받은 성격, 나의 슬픈 반생기, 들판에서, 아홉 살 인생, 섬마을 아이들,

- 56) 이 분류에서 중심인물의 정의는 반드시 그 작품 안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적극적인 성향의 인물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수필의 경우에는 일인칭 작가가 화자가 되어 글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서술의 주체와 서술대상이 다른데 이러한 경우에는 중심인물의 성을 구별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이 통계에서 제외시킨 작품들도 있다.
- 57) 「강아지똥」의 경우가 그러하다. 「강아지똥」의 성별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 작품 내에서 성이 명시된 인물로는 병어리 엄마가 등장하는데 중심인물이 아니므로 이 통계의 범위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 58) 「어머니의 우산」, 「한 눈 없는 어머니」, 「육중에서 어머니께 올리는 글월」, 「딸에게 온 연애 편지」는 분명 남성의 화자가 여성인물을 중심제재로 하여 서술하고 있다. 수필의 형식이기 때문에 서술하는 주체는 남성이지만 서술대상은 여성이다. 그 여성은 그 작품에서 중심인물이기는 하지만 중점적으로 서술된다는 것이지 이야기의 흐름을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인물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류의 작품들을 위의 통계에 편입시키지 못했다. 자칫하면 통계적으로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미동 사람들」,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오발탄」처럼 특정 인물을 주인공으로 꼽을 수 없고 다양한 인간군상이나 가족 전체가 주인공인 작품들 또한 이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최명희의 「혼불」은 나의 온 존재를 요구했습니다」 역시 학생들이 작가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는 그 작품에서 서술하는 주체의 성별을 알기 어려우므로 이 분류에서 제외한다.

			시집 가는 날, 운수 좋은 날, 봄바람, 내 생애 가장 따뜻한 날들
계	11 (25%)	3(6%)	20(46%)

위의 사항에 주의하여 분류한 결과 연구 대상 작품 총 43개 중에서 9개를 제외한 나머지 34개 작품 중에서 중심인물이 여성인 경우가 25%, 남성 중심인 경우가 46%, 남성과 여성인물이 중심인 경우는 6%로 나타났다. 중심인물이 남성인 경우가 여성 인물인 경우, 남성과 여성 주인공이 공동으로 중심인물이 되는 경우보다 더 많았는데 가장 바람직한 경우인 남성과 여성 주인공이 공동으로 중심인물이 되는 경우는 제일 적었다.⁵⁹⁾

그렇다면 제7차 중학교 교과서의 중심인물의 성비의 균형 정도가 나아지고 있는지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 윤혜정의 연구를 참고하기로 한다. 등장인물들을 그 역할의 중요도에 따라 작품 내에서 일정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연급 인물들을 중심인물로, 미미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들을 기타인물로 정하고 그 비율을 남성과 여성에 따라서 살펴보면⁶⁰⁾ 제 5차에서 제7차로 오면서 여성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비율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 기타인물로 등장하는 경우는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중심인물로 등장하게 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한 점이 긍정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중심인물의 성이 남성으로 치우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59) 교과서가 장편 보다는 단편을 실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층위와 성별의 주인공을 내세우지 못한 점도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작용했을 거라 예상된다.

60) 윤혜정, 앞의 글, p.21.

	제 5 차		제 6 차		제 7 차	
	중심 인물	기타 인물	중심 인물	기타 인물	중심 인물	기타 인물
여성	15 (31.9%)	17 (25.4%)	12 (26.1%)	12 (22.2%)	39 (44.8%)	19 (23.8%)
남성	32 (68.1%)	50 (74.6%)	34 (73.9%)	49 (77.8%)	48 (55.2%)	61 (76.3%)
계	47 (100%)	67 (100%)	46 (100%)	63 (100%)	87 (100%)	80 (100%)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교과서에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모두 이야기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작품이 많이 수록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 작품에서 중심인물의 성비가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쉽지 않다. 문학은 사회의 반영이고 작가는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표현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인물과 사건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주인공의 계층이나 성은 작가의 의도에 의해 전략적으로 선택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남성 중심적인 사회의 현실을 생각해볼 때 작품에 반영할 사회의 현실이 남성 중심적인 상황에서 작품의 등장 인물이나 주요인물의 성비의 균형을 주장한다는 것은 오히려 인위적인 측면이 있다. 교과서가 문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적 측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남성과 여성의 훌륭한 역할모델이 될 만한 인물들의 수록이 장려되기는 해야 하나 양성평등적 관점에서만 교과서를 편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⁶¹⁾ 이를 편파적으로만 비판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현재의 교과서 수록 작품에서 보이는 주요인물의 성적 불균형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

61) 교과서의 편찬은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학습목표의 성취와의 연계성, 학생들의 수준과 이해도, 문학의 작품성 등을 고려해야만 한다.

에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는 가능한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모두 좋은 역할모델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의 반영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여성 인물의 활동 공간과 사회적 역할

인물이 등장하는 공간은 많은 것을 내포한다. 공간은 주인공의 사고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행동반경을 제약하는 틀로 작용하기도 하며 사회생활의 유무를 암시하기도 하며 때로는 주인공의 정체성이 공간에 의해 규정되기도 한다.

제5차부터 제7차 중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인물들의 등장공간을 가정과 사회(학교, 공공·일반 시설, 야외)로 나누어 살펴본 윤혜정⁶²⁾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 주인공이 가정을 배경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남성의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점차 사회를 등장배경으로 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그 격차가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제5차		제6차		제7차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가정	21 (65.6%)	16 (19.5%)	17 (65.4%)	13 (15.7%)	32 (55.2%)	38 (34.9%)
학교	1 (3.1%)	4 (4.9%)	1 (3.8%)	4 (4.8%)	3 (5.2%)	4 (3.7%)
공공· 일반 시설		1 (1.2%)		1 (1.2%)		1 (0.9%)
야외	10 (31.3%)	61 (74.4%)	8 (30.8%)	65 (78.3%)	23 (39.7%)	66 (60.6%)
계	32 (100%)	82 (100%)	26 (100%)	83 (100%)	58 (100%)	109 (100%)

62) 윤혜정, 앞의 글, p.24.

아무래도 등장배경이 가정이라고 한다면 직업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적다.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물의 출현장소가 주로 가정에 국한되어 나타난다면, 그리고 성에 따라 그 차이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면 학생들에게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제 7차 중학교 국어교과서 한국 현대 산문 작품을 중심으로 여성과 남성의 직업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	직업
여성	선생님, 학생, 가정주부, 약사, 대학교 강사, 수녀, 작가, 회사원, 상업종사자
남성	과거 준비생, 부채 장수, 종교인, 교수, 사장, 극장직원, 경비원, 의대교수, 의사, 선생님, 작가, 측량기사, 상업 종사자, 인력거꾼, 군고구마장수 아저씨

제7차 중학교 국어교과서 한국 현대 산문 작품의 등장인물의 직업을 분석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 인물의 직업이 더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성의 경우에는 직장이 있다 하더라도 직장의 종류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된 경우도 있었고 남편의 직업과 연관되어 지칭⁶³⁾된 경우도 있었다.

여성의 직업군에는 가정주부도 포함하였다. 가정주부도 무보수의 가사노동 종사자⁶⁴⁾이고, 그들의 일이 사회적으로 비용으로 환산되지 않을 뿐이지 사회적으로 환산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타의 직업과 가사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여성 등장인물의 대부분이 가정주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만은 볼 수 없다.

실제로 학생들이 성장하여 사회에 나가게 될 즈음엔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자아실현 기회를 충분히 가져야 한다. 특히 21세기의 세계화·정

63) 「옥상의 민들레꽃」에서 뚱뚱한 여자는 ‘쇠붙이 회사 사장’의 부인이라고 소개된다. 제7차 중학교 국어교과서 1-1, 교육인적자원부, 2001. p.259.

64) 김태현·이문숙, 『21세기에 만나는 여성의 삶』,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p.162.

보화 시대를 맞아 남녀 모두의 사회참여는 현실적 당위성과 절박한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⁶⁵⁾ 미래에는 직업 활동을 통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사회참여가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는 관점에서 보면 남녀 학생 모두가 자신의 미래의 사회생활을 위한 많은 역할모델을 만나보는 것이 학생들의 직업관과 미래 관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문학을 통해 학생들이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런 인물들이 남녀주인공 모두에게 발견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하겠다.

4. 양성평등교육을 위해 수록된 단원 분석

제 7차 중학교 국어교과서 2학년 1학기 대단원 4. 삶과 문학⁶⁶⁾의 <보충·심화>에는 양성평등적 관점을 고려하여 학생 작품 「늦깎이 학생, 나의 어머니」가 수록되어있다.

삶과 문학 단원의 소단원 (1)에는 「가정」, 소단원 (2)에는 「기억 속의 들꽃」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두 작품이 각기 당대의 삶을 어떻게 보여 주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감상해 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보충·심화>에는 학생 작품인 「늦깎이 학생, 나의 어머니」와 김소월의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다면」이 수록되었는데 「늦깎이 학생, 나의 어머니」는 남녀 불평등 현상이 작품 속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살펴보는 것에,⁶⁷⁾ 김소월의 「바라건대는 우리

65) 김태현·이문숙, 위의 책, pp.27-29.

66) 이 단원의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① 문학 작품이 삶을 바탕으로 하여 창조되었음을 안다.② 문학 작품이 쓰인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여 문학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67) 「늦깎이 학생, 나의 어머니」의 본문 앞에는 다음과 같은 제시 글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자보다 남자를 우대하였다. 다음 글은 이러한 사회적

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다면」은 일제 강점기에 땅을 빼앗긴 우리 민족의 삶이 시에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⁶⁸⁾

「늦깎이 학생, 나의 어머니」의 활동 취지 및 지도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⁶⁹⁾

수필은 글쓴이의 경험이 특별한 문학적인 장치나 기교 없이 비교적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글이기 때문에 시나 소설보다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이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이 활동은 수필 작품 속에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활동을 위하여 학생 작품 한 편을 수록하였는데, 이 작품 속에는 어머니가 여성으로서 겪는 삶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작품 속에서 남녀 불평등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같은 주제를 다룬 다른 학생의 시와의 비교를 통해 같은 사회적, 문화적 현상이 작품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하는 활동을 하도록 지도한다.

비록 양성평등 관점을 수용한 작품이 본문에 제시된 것이 아니라 소단원 속 보충 심화에 수록되었지만 이렇게 표면적으로 양성평등의 관점이 고려되어 작품이 선택되었고 그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활동 문항이 제작되었다는 것은 교과서 속에 양성평등관점을 수용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작품이 본문에 제시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을 수 없다. 작품을 선정할 때에는 작품이 교육과정에 따라 단원에서 요구되는 학습 목표에 부합되는가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작품성과 학생들의 이해력

인식 속에서 늦게나마 자기의 꿈을 이루어 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딸이 지켜보면서 쓴 글이다. 남녀 불평등이 이 작품 속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파악하면서 읽어 보자.

제7차 중학교 국어과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2-1, 교육인적자원부, 2004, p.171.

68) 시간의 안배 상 교과서는 ‘자기 점검’을 통해 이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각자 점검해 보고, 적절한 활동을 선택해서 공부해 보자.’라고 안내되어 있다.

69) 제7차 중학교 국어과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2-1, 교육인적자원부, 2004, p.201.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 작품인 「늦깎이 학생, 나의 어머니」⁷⁰⁾라는 수필은 ‘지애’라는 딸이 더 이상 ‘지애의 어머니’가 아닌 ‘박정순’으로 사는 어머니의 자아실현과정을 그린 작품⁷¹⁾으로 부인의 사회생활이 못 마땅한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갈등, 왜 여자가 집안일은 안하고 사회진출을 꿈꾸느냐하고 비판하는 세상의 편견과 어머니와의 갈등을 현실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먼저 어머니와 아버지의 갈등을 살펴보겠다.

불안한 눈빛을 보이며 엄마는 내게 고갯짓으로 아버지의 상태를 물어 보셨다……“무슨 놈의 학교가 10시가 넘도록 수업을 해? 거짓말 아냐? 그리고 공부하러 간 여자가 치마는 왜 입고 화장은 왜 해?”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찰은 그 때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한때의 일이겠거니 하며 이해해 주셨던 아버지는 그 나이에 여자가 대학원을 다닌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화를 내셨다.

아버지의 지나친 자부심은 어머니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약을 갖다 주실 때마다 아버지는, “이건 흔치 않은 약인데, 당신 같은 사람이 나랑 결혼한 건 행운이야.” 라고 하셨다. 아버지께서 무심히 하신 말씀들이 20년이란 세월 동안 쌓이고 쌓여서 어머니의 가슴은 굴욕으로 멍들었는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끔 엄마를 무시하는 발

70) 「남녀 평등한 세상 만들기」, 대통령 직속 여성 특별 위원회·교육 인적 자원부, 2000.

71) 어머니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 교육원 강사가 되셨다. 요즘은 어머니는 ‘지애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 원래의 이름 ‘박정순’으로 사신다. 어머니의 이름을 찾은 것이다.

제7차 중학교 국어과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2-1, 교육인적자원부, 2004 , p.175.

언을 하고 엄마의 사회진출을 반대한다. 그 이유는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한다는 것’과 ‘사회생활 때문에 집안일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 물론 결국에는 ‘어머니가 사회교육원 강사로서 자리를 잡으면서 아버지도 은근히 속으로는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다’는 화자의 진술로 보아 아버지도 어느 정도 어머니의 자아실현 욕구를 이해하게 되는 것 같이 보인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갈등 양상을 통해서 우리는 여성이 자아실현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에 가정 내부적으로도 어떤 편견에 부딪힐 수 있는지 살펴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세상의 편견과 어머니와의 갈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다.

아버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어머니의 사회 진출을 고운 눈으로 보지 않았다. 평소에는 현대적이고 이해심이 많은 것처럼 행동하던 사람들이 어머니의 결심을 듣고 나선 “어머, 그럼 밥은 누가 해?” 라고 말하곤 하였다. 어머니가 밥 하는 기계였던가? 사실이 그랬다. 어머니는 며느리였고, 부인이었고, 어머니였고, 기사였고, 식기 세척기였고, 세탁기였다.

‘평소에는 현대적이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들도’ 막상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해서는 보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보수적인 남성뿐 아니라 여성들도 특별한 자각 없이는 기존의 사회에서 통용되는 성역할을 당연시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의 이름 없이 ‘밥 하는 기계, 며느리, 부인, 어머니, 기사, 식기 세척기, 세탁기’로 살던 어머니가 왜 그토록 자아실현을 이루고 싶었는지를 가장 역설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다음은 화자가 느끼는 어머니에 대한 감정의 묘사이다.

어머니는 마치 숨도 안 쉬는 것처럼 몇 시간이고 꿈쩍도 않고 공부에 열중하셨다. 어머니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았다. 나는 그런 어머니가 보기 좋았다. 어머니께서 늦게나마 좋아하는 일을 찾은 것이 기뻛고, 많다면 많은 나이에든 용기 있게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열정과 노력이 아름다워 보였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을 소유한다. 조금 늦었지만 지금 어머니께서 누리는 삶은 어머니에게 꼭 맞는 옷 같아서 보기가 좋다.

이 수필은 자식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자아실현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학생들은 아직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 학생들이 남녀 불평등을 느꼈다면 가정이나 학교에서 겪었을 가능성이 제일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가정에서 일어나는 남녀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가장 자신에게 근접한,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수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이 수필과 관련하여 학습활동에서는 학생 작품 「두 얼굴」⁷²⁾이라는 시가 소개되고 있다.

<학습활동 1>

1. 앞의 글과 다음 시에서 남녀 불평등 현상을 찾아 비교해 보자.

두 얼굴

학생 작품

인형놀이는 무슨...../ 사내 대장부는 그림 못써! / 애써 울음 참는 내 동생.//

축구는 안 돼! / 무슨 여자 애가 저렇담. / 움츠러드는 내 어깨.//

72) 「남녀 평등한 세상 만들기」, 대통령 직속 여성 특별 위원회·교육 인적 자원부, 2000.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다/ 그래 놓고서.//

말 따로 마음 따로 / 두 얼굴의 우리 엄마/ 앞치마 두른 아빠는 좋아하
시면서.

이 시는 학생의 작품으로 부모가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성역할의 편견에 대해서 장난스럽게 풍자하고 있다. 이 시는 유년기의 아이들이 어떻게 성역할 편견을 갖게 되는지 유추하게 해준다. 비록 화자의 가정이 기존의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관철되던 이데올로기⁷³⁾에 철저하게 지배당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⁷⁴⁾ 불완전한 양성평등의 시대에 태어나 성장했던 부모의 세대가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역할 편견을 다시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들은 그러한 점에 대해 모순점을 느끼고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그러한 성역할 이데올로기가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된, 후천적인 것임을 방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학습활동 2번에서는 굳이 남녀 불평등 현상을 ‘여성’ 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겪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자신이 남자이기 때문에, 또는 여자이기 때문에 불평등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지 말해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체험을 상기함으로써 더욱더 작품과 현실의 관련성의 밀도를 높일 수 있다.

73) 남성은 울면 안 되고 씩씩해야 한다, 여자는 다소곳해야 한다는 편견

74) 아버지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모습의 묘사로 보아 어느 정도 가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학습활동 2>

2.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에 대하여 알아보자.

- (1)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자이기 때문에, 또는 여자이기 때문에 불평 등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면 말해 보자.
- (2) 우리 가정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평등하게 생활하신다고 생각하는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해 보자.
- (3)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학습활동 2번의 (2)에서는 가정에서 느꼈을 만한 남녀 불평등 경험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고 있다. 수필의 주요갈등 장소가 가정이었고 아직 학생들은 사회에 진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겪었던 남녀 불평등은 학교나 가정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사실 많은 고정관념은 유년기 때 가정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돌아볼 기회를 갖게 한다는 것은 좋은 시도이다.

이 외에도 교과서 본문에서 보이는 성 불균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는 간간히 보이는데 몇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소설 「소나기」는 서술의 초점이 소년에게 맞추어져 있다. 서술의 시점이 객관성을 띠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은 소년의 입장이 지배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를 보완하려는 의도에서인지 「소나기」의 <학습활동>에서는 소녀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게 하는 문항이 삽입되어 있다. 소녀의 입장에서 소년에게 편지를 쓰는 학습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은 소년의 입장에서 살펴보았던 사건들을 다시 소녀의 입장에서 재경험해

볼 수 있다는 면에서 소설의 편중된 서술 시점의 단점이 보완된다고 할 수 있다.

민족의 수난과 고통극복을 다루고 있는 「숨쉬는 영정」의 주요 등장인물은 남성이다. 민족의 화합을 상징하는 이산가족상봉의 순간에도 만남의 당사자는 남성으로 나온다. 이 만남이 민족의 화합이라는 거시적 차원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에서 여성이 배제되었다는 느낌을 준다. 그런데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보완하려는 의도인지 본문 읽기 전에 제시된 도입부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다룬 신문 기사’에는 헤어졌던 딸과 아버지가 만나는 기사가 제시되어 있다. 이산가족상봉이라는 역사적 순간이 특정 인물이나 특정 성만이 누리는 것이 아닌 양성 모두가 공유하는, 대국민적인 화합이었다는 느낌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된 수록이 아닌가 싶은데 본문에 수록되는 작품에서 교육적으로 미미한 측면이 발견된다면 그것을 단원의 길잡이나 학습활동에서 보완해주고자 하는 노력은 필요하고 긍정적이라고 본다.

5. 발문에서 드러나는 양성평등 인식의 문제점

교과서의 체제를 보면, 어떠한 작품이 선정되었는가는 어떻게 배치되는가의 문제 속에 가려지는 측면이 있다. 대부분의 국어 교과서는 모든 대단원, 소단원에 동일한 체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학작품은 일정한 방식으로 형식화된 체제 속에서 그 의미를 부여 받는다. 곧 문학작품은 학습목표, 학습활동과의 관계 속에서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⁷⁵⁾

75) 김혜영, 「현대문학 정전 재검토」, 『한국현대소설사의 정전 재구성 과 문학교육』, 한국현대소설학회·한국문학교육학회, 2007.11.10, p.170.

교육학에서 발문(Questioning)의 사전적 의미는 “학생의 사고를 자극하며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⁷⁶⁾ 즉, 발문은 학생이 학습해야 할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는 교수의 단서로, 학생의 사고나 행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인도하여 학생이 의식하고 있지 않았던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게 하고, 사고와 표현활동을 유발, 촉구한다는 데 그 본질이 있다. 따라서 문학 작품의 감상 및 읽기 지도에 있어서 발문은 적극적, 능동적 읽기를 유도함은 물론, 학생들의 사고 활동을 자극하고 촉진시켜 사고력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⁷⁷⁾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발문은 학생들의 문학 감상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하는데 학생들은 발문 활동을 하면서 교과서 본문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특정 부분을 되새기게 된다. 그러면서 본문의 어느 부분이 강조되어 학습될 수도 있고 특별한 해석이 가미되기도 한다.

발문 속에는 의식적이던지 또는 무의식적이던지 교과서 편찬자들의 작품 해석의 견해가 개입하게 된다. 하지만 발문은 객관적인 질문의 형태로 제시되기 때문에 이러한 편찬자들의 견해는 표면화되지 않는다. 발문의 제시에 특정한 고정관념이 작용되어 있다면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감상의 폭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발문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특정한 성적 편견이 작용하는 발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발문은 ‘교과서 <학습 활동>도 발문의 한 유형이다’ 라는 최성임⁷⁸⁾의 견해를 수용하여 교과서 읽기 중 활동에서 제시되는 ‘날개’와 읽기 후 활동에서 제시되는 <학습활동>전부를 포함한다.

이에 관해서는 1학년 1학기에 실린 「국물 이야기」와 「옥상의 민

76) 현종익·이학준, 『교육학용어사전』, 동남기획, 2002.

77) 최성임, 「문학교육을 위한 발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10.

78) 최성임, 위의 글, p.6.

들레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국물 이야기」는 식탁에 국물이 사라지면서 우리들의 정서 또한 메말라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수필이다. 작가는 이기적이고 각박하게 변해 가는 현실의 이유를 음식 문화에서 찾고 있다. 그 예시로 서구화된 식탁문화에 길들여진 자신들의 아이들과 반대로 국물을 챙기려 하는 작가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작가의 부인은 식단을 짤 때 서구화된 식단을 선호하는 아이들과 국물이 있는 것을 선호하는 남편 사이에서 고심하며 눈치를 본다.⁷⁹⁾

내 아이들도 예외는 아니다. 생선은 굵고, 닭고기는 튀겨야 맛이 있다고 성화인 것만 보아도 그렇다. 나는 그 반대 입장에 서서 국물이 있는 것으로 입맛을 챙기려 하니, 아내는 늘 지혜롭게 식탁을 꾸려 갈 수밖에 없다.

오늘 아침에도 조기 한 마리를 사다 놓고, 구울까 찌개를 끓일까 망설이는 아내의 처지가 참 안쓰러웠다. 한참을 망설이던 아내는 내 눈치를 보면서 끝내 조기를 굽는다.

아내는 음식을 할 때 식단에 자신의 기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이들의 기호에만 치중하여 음식을 한다. 부인은 남편과 아이들이 선호하는 식단의 경향이 현저하게 상이해서 갈등 하는데 남편은 부인이 갈등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부인의 눈치 보며 식단 짜는 것을 ‘지혜롭게 식탁을 꾸려 간다’는 식으로 미화해서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음식을 하는 것이 마치 아내의 몫이자 의무인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 이 단원에서 교과서 본문에 드러난 성역할에 대한 편중된 의식 외에 발문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79) 제7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 1-1, 교육인적자원부, 2001, p.68.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교과서 70쪽의 <학습활동> 중 <적용학습>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적용학습>

2. 다음의 글을 다시 읽어 보자. 평소 우리 어머니께서도 이런 고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할 때에 그런 고민을 하는지 생각해 보자.

오늘 아침에도 조기 한 마리를 사다 놓고, 구울까 찌개를 끓일까 망설이는 아내의 처지가 참 안쓰러웠다. 한참을 망설이던 아내는 내 눈치를 보면서 끝내 조기를 굽는다.

교사용 지도서에는⁸⁰⁾ 이 글이 학생들의 아버지 세대가 쓴 수필로, 학생들이 전혀 접해 보지 못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낯선 내용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라고 그 수록 취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했듯이 확인학습 등과 같은 발문에 특정한 가치성향이 전제되면 학생들은 사고의 방향이 특정된 상태에서 작품을 해석하게 된다. 학생들이 교과서 본문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하는 발문에 오히려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다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생각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문의 객관성은 매우 중요하다.

「국물 이야기」의 적용학습에서는 어머니가 음식을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음식을 하는 것을 어머니의 역할로 전제해 놓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제시된 성역할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보다는 그러한 역할은 당연히 어머니의 것으로 치부하고 적용학습에서 묻는 대로 평소에 어머니가 식단문제로 어떠한 고민을 했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80) 제7차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1-1, 교육인적자원부, 2004, p.106.

가사노동과 사회생활이 특정 성에게 국한된 시대는 지나갔다. 더군다나 제7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배우고 있는 현재의 중학생들이 성장하여 어른이 될 즈음에는 그러한 경향이 더 보편적으로 정착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특정 성만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는 교과서의 본문 상황을 아무런 반성 없이 당연한 것으로 전제한 상태에서 학생들의 관련된 경험을 묻는 것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 글의 주제는 ‘인정이 메말라 가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인데 발문은 주제에 접근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특별히 주제와 관련되지 않는, ‘가족을 위해 식단을 짜서 음식을 하는 어머니의 갈등’을 학생의 입장에서 회상해 보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문항 설정이었다.

「옥상의 민들레꽃」은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현대인의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 인간적 가치의 경시 풍조를 비판하며, 인간적 가치의 회복을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그려 내고 있다.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적 가치를 상실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우리들에게 진정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라고 안내하고 있다.⁸¹⁾

마을 사람들은 아파트 주민 중 할머니가 자살을 하자 사고를 수습하고 예방하기 위해 회의를 연다. 회의 중에 자살한 두 할머니의 딸과 며느리의 봉양 방식의 문제점이 거론되는 부분이 있다.

“그분이 왜 목숨을 끊고 싶었을 지에 대해 아는 대로 대답해 주십시오. 먼저, 돌아가신 할머니의 따님과 며느님.”

교수님은 교수님답게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지적을 합니다. 지난번에 돌아가신 할머니는 따님하고 같이 사셨고, 이번에 돌아가신 할머니는

81)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1-1, 교육인적자원부, 2004, p.278.

아드님하고 같이 사셨답니다. 두 할머니의 딸과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을 뿐 대답을 못 합니다.

“무엇을 부족하게 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할머니의 죽음에 대해 딸과 며느리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다. 물론 할머니의 자살의 원인에는 가족들의 무관심이 상당 부분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책임의 당사자로 딸과 며느리만이 지목되는 것은 옳지 않다. 근본적으로는 이 반사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웃의 자살에 대해서 책임질 누군가를 논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반사회에 참석한 사람들 또한 자신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주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모여서 이웃이 자살을 한 원인을 밝혀내고 또 다른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토론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의 이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지 진정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며 다음에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고 모인 것이 아니다. 「옥상의 민들레꽃」의 작가 박완서는 소시민의 삶을 통해 인간의 모순적인 면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필법으로 유명한 작가이다. 이 작품 역시 마을 사람들 모두의 모순된 면을 비판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독자들이 작품을 읽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모순된 면을 발견하고 나아가서는 독자들 또한 마을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독자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 작가의 집필 의도였을 것이다.

할머니가 자살을 한 이유를 미시적으로 따져보면, 가족 구성원의 무관심과 할머니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이 그 원인이 되겠지만, 거시적으로 본다면 이웃의 무관심과 사회의 전체적인 구조와 환경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할머니의 죽음의 책임을 딸과 며느리에게만 지우려는 마을 사람들은 이웃으로서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망각한 듯 보인다.

그런데 할머니의 죽음을 딸과 며느리에게만 한정시켜 책임을 물으려는 마을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른을 봉양하는 것이 여성의 몫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작가는 봉양을 여성의 몫으로만 치부하는 마을 사람들과 할머니의 진짜 자살의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임의적인 해석만을 늘어놓는 모두를 간접비판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 ‘날개’⁸²⁾에서 던지는 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딸과 며느리는 할머니를 어떻게 모셨는가? 이들은 자신의 봉양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딸과 며느리는 할머니를 잘 모시려고 노력은 했으나 할머니의 심리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물질적인 봉양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며느리의 경우에는 봉양의 주체로서 아들도 함께 거론되는 것이 옳다. 하지만 발문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했던 “무엇을 부족하게 해 드리지 않았습니까?”란 질문을 그대로 수용해서 ‘딸과 며느리가 할머니를 어떻게 모셨는지’ 그리고 그러한 자신들의 봉양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반성하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이 경우의 발문은 교과서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주관적인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발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적 차원의 객관적인 사실을 묻는 발문이 본문 옆에 실린 것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학습활동에 제시된 발문이 아니라 교과서 본문 옆에 제시된 날개는 일차적으로는 본문의 이해를 돕고 확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본문을 비판하는 수준까지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우에 날개 형식으로 제시된 발문에서 학생들에게 마을 사람들의 대화에서 드러난 문제점까지 탐구하게 한다면 오히려 이해의 맥을 끊음으로써 아이들의 전체적인

82) 제7차 중학교 국어과 교과서 1-1, 교육인적자원부, 2001, p.262.

작품 이해를 방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발문이라 하더라도 본문 학습 중에 제시된 날개 형식의 발문과 본문 학습을 다 끝내고 이루어지는 학습활동 형식의 발문은 학생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고수준의 정도가 다르다. 그래서 학습활동 등에 제시된 발문은 본문의 이해가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수준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작품의 구성이나 등장인물에 대한 비판, 창작활동 등을 유도할 수 있다. 질문의 수준은 학생들에게 너무 어려워도 쉬워도 안 되며 주제나 본문의 핵심에 대해서 되짚을 수 있는 좋은 질문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본문에서 비판할 거리가 있으면 그 해답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에 기반을 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교과서 목표학습 2번⁸³⁾에서 제시된 학습활동을 살펴보면 학생들이 딸과 며느리의 봉양에 대해서 학생들이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위험의 여지가 있다.

<목표학습 2>

딸과 며느리는 돌아가신 두 할머니에게 부족하게 해 드린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두 할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듯하다. 두 할머니의 입장이 되어 며느리와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지 적어 보자.

딸(며느리) : 엄마(어머님), 제가 부족하게 해 드린 것이 조금도 없는데 왜 죽음을 택하셨나요?

두 할머니 : _____

학습활동을 읽어보면, 딸과 며느리만이 봉양의 책임을 맡은 것이 당연하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학생들은 문제를 푸

83) 제7차 중학교 국어과 교과서 1-1, 교육인적자원부, 2001, p.271.

는 데 집중하여 충분한 비판 의식 없이 이 전제를 받아들이고 학습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에 전제된 사고 방식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소한 편견의 개입은 학생들이 작품을 해석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세심한 배려와 주의가 필요하다.

IV. 교과서에 재현된 여성상과 이데올로기

우리는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작중인물의 삶의 방식이나 성격이 우리 자신과 너무 닮았다는 데 놀라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그 닮음의 정도는 작품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이는 독자가 작중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데서 생겨나는 체험이다. 정신분석학 용어인 동일시(identification)란 무의식적 혹은 반의식적으로 자기와 관계되는 자기 이외의 대상과 자신을 동일하게 보는 정신적 메커니즘이다. 그런데 동일시란 명확한 의식의 지각작용이라기 보다는 잠재의식적인 반응의 결과이다. 그러한 동일시 대상은 부모, 교사, 친구 등 가까운 주위의 실재 인물일 수도 있고, 신화나 허구적 작품의 등장인물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추상적 개념이나 이미지로 대체될 수도 있다. 인간이 성인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이러한 동일시 과정이 축적된 결과라고 심리학자들은 설명한다.⁸⁴⁾

그러나 삶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체험되는 동일시는 단편성, 일회성을 벗어나기 어렵고 의도적인 인간교육의 설계 및 수행에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또한, 즉물적 사건이나 일면적인 지식 및 개념은 삶의 전체적 면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동일시는 그 개인의 특정한 부분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 행위양상의 전체적 메커니즘을 충분히 규명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문학작품을 수용하는 과정의 동일시, 예컨대 작중인물과의 동일시는 의도적, 총체적 인간교육에 유효한 기능을 수행한다. 문학작품을 통한 체험은 통일성을 잃은 산만한 현실적

84) 정원식 외, 『현대교육심리학』, 교육출판사 1984, p.94.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07, pp.58-59에서 재인용.

경험이나, 미분적인 전문 학문의 경험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문학은 우리의 유동적 삶을 구체적인 실체로 포착하면서, 삶의 본질적 구조를 총체적으로 반영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문학을 통해서 의도적, 계획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이로 볼 때, 가장 실효성 있는 인간교육의 구체적 방안 가운데 하나가 문학을 통한 동일시라 할 수 있게 된다.⁸⁵⁾

특히 청소년들은 매우 높은 가소성(可塑性)을 지니고 있다. 그들의 정신은 일종의 백지(tabula rasa)상태로서, 모방 가능한 모형에 대한 동일시의 경험이 축적되는 가운데 자아를 형성한다. 따라서 성장단계에 따라 자아를 형성하는 데에 모델이 될 만한 작중인물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문학적 자료는 사회적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전형적 인물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동일시의 대상이 될 만한 총체적이고도 다양한 모형을 제공한다.⁸⁶⁾

문학적 자료 중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권위를 부여하고 반복하여 읽게 되는 것이 교과서라고 할 때 교과서에서 보여주는 등장인물의 다양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교과서의 전제 요건이다. 이러한 면에서 교과서의 등장인물들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교과서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분석해서 교과서가 구현하는 인물상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이 논문에서는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가장 왜곡되어 그려지기 쉬운 여성 인물들⁸⁷⁾이 교과서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재현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85)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사, 2007, pp.58-60.

86) 구인환 외, 앞의 책, pp.66-68.

87) 팸 모리스는 『문학과 페미니즘』에서 여성의 이미지는 남성의 욕구충족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지며 남성들은 끊임없이 여성들을 그들의 타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남성들에 의해 재현되는 ‘여성’은 이중적이고 기만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팸 모리스, 강희원 역, 문학과 페미니즘, 문예출판사, 1999, pp.31-67.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재현된 여성상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긍정적인 여성상으로 적극적 주체로서의 여성 주인공과 자기 반성적 성찰의 여성 주인공을 살펴볼 것이고, 부정적인 여성상으로는 수동적·운명 순응적 여성 주인공과 이기적인 여성 주인공을 살펴볼 것이며, 마지막으로 주변적 인물로서의 여성 주인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끝으로는 여성주인공이 등장하지 않는 작품들을 따로 분석할 것이다.

1. 긍정적인 여성상

제7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 중 비교적 긍정적인 여성 인물들을 살펴본 결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이다. 이들은 작품 속에서 비교적 일관된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노력한다. 두 번째 유형의 인물들은 자율적 자기 성찰의 모습을 보이는 여성이다. 이 유형의 여성들은 처음에는 자가당착적인 모순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결국엔 자율적으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고 스스로 자신의 틀을 깨어나가는 여성들이다. 자아를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이성적이고도 자율적인 사고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며 그런 인물들은 자기개선의 의지가 있다는 면에서 주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주인공들을 첫 번째 인물상과 차별화하기 위해 첫 번째 인물들의 유형에서 분리하여 그들이 깨달음의 과정을 겪으며 보여주는 모순적인 면들과 주체적인 면들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1) 적극적 주체로서의 여성 주인공

「어린 날의 초상」은 수필가 문혜영이 초등학교 3학년 시절 어머니를 대신하여 어린 동생을 데리고 소풍을 갔던 기억을 회상하며 쓴 수필이다. 주인공은 어려운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는다. 주인공은 동생과 함께 봄 소풍을 갈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빗나가자 임기응변으로 담임선생님을 설득해서 동생의 봄 소풍을 따라가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되는, 적극적인 상황대처능력과 결단력이 돋보이는 인물이다.

흔히 「소나기」의 소녀는 수동적인 인물로 그려지곤 한다.⁸⁸⁾ 그러나 실제로 소녀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 소녀의 성격이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녀가 수동적인 인물로 각인된 이유는 아마도 소녀가 육체적으로 허약하고 죽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최시한⁸⁹⁾은 소년과 소녀가 친구가 되는 과정, 특히 첫째 만남에서 소녀가 소년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라고 하였다. 점차 소년과 소녀의 만남이 깊어지면서 소년은 심리적으로 소극성을 아주 떨치지 못하는 못하다가, 소녀를 위해주는 적극적·능동적인 행동과 소녀와의 신체적 접촉, 자기 과시 행동 등을 통해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심리적 자신감-교제 상대방으로서의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과 긍정-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실제로 소녀는 소년과 만남에서 처음으로 소년에게 말을 걸었고⁹⁰⁾

88) 정아정은 여성인물을 중심으로 한 중학교 소설 교재의 작품분석에서 소나기의 여성 주인공이 수동적이고 운명 순응적이라고 하였다.

정아정, 앞의 글, pp.49-51.

89) 최시한, 『소설의 해석과 교육』, 문학과 지성사, 2005, pp.132-133.

90) 소녀는 자신 때문에 징검다리를 건너지 못하고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며 우두커니 서 있는 소년을 향해 "이 바보."라고 소리친다. 이 말은 둘의 첫 만남에서 나온 첫 말이다. 대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첫 마디를 소녀가 건넨 것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두 번째 만남에서도 조개의 이름을 물으면서 먼저 말을 건다. 갈림길에서 산 너머로 가보자고 제안한 점, 수숫단 속에서 소년에게 들어와 앉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소녀는 먼저 소년에게 다가서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소년에게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양상을 보인다.

「동백꽃」의 점순이도 적극적인 성격의 인물이다. 상대적으로 소년은 소극적인 성격의 인물로 비추어지는데 이것을 단순히 소년이 농촌내의 마름과 소작인이라는 자신의 사회적 관계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을 까봐 행동을 조심하기 때문이라고 만든 해석할 수 없다. 이남호는 사회적 관습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동백꽃」을 해석하는 것을 비판하며, 소년이 소작인의 입장에서 어떤 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점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소년의 감정과 행동 속에서 피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그에 따라 자신을 통제하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고 하였다.⁹¹⁾

소녀는 소년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감자를 주고 소년이 점순이의 답을 죽여서 당황한 나머지 울고 있을 때에도 먼저 위안의 말을 건네는 등 항상 적극적인 양상을 보인다. 물론 소녀가 소년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데 유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소녀는 소년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자기표현에 막힘이 없고⁹²⁾ 자신이 맡은 일을 잘 해내는 주체적인 인물이다.

「기억 속의 들꽃」은 6·25전쟁이라는 처참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피란 길에서 홀로 남겨진 명선이는 전쟁터에

시도라 볼 수 있다.

91) 이남호, 『교과서에 실린 문학작품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현대문학, 2001, pp.351-352.

92) 어찌다 동리 어른이 "너, 얼른 시집 가야지?" 하고 웃으면 "엄려 마시유. 갈 때 되면 어른이 갈라구....." 이렇게 천연덕스레 받는 점순이었다. 본시 부끄럼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얼병이도 아니다.

제7차 중학교 국어과 교과서 3-1, 교육인적자원부, 2001, p.260.

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남장을 하고 소년처럼 행동을 한다. 명선이가 피난길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남성처럼 행동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 여성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많은 위협에 처했는지를 가늠하게 한다. 명선이가 처했던 환경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보호본능을 위한 방어기제로서 남자인 척 해야겠다고 무의식적으로 느꼈을 정도로 위협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명선이는 여자로 밝혀진 이후에도 그전과 다름 없이 행동한다.

타고난 본래의 여자 모양을 되찾은 후에도 명선이는 갈 데 없는 머슴 애였다. 하는 짓거리마다 시골 아이들 뺨치는 개구쟁이였고, 토박이의 텃세를 계집애라는 이유로 쉽사리 물리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온갖 망나니 짓에 오히려 우리의 앞장을 서곤 했다. 다람쥐처럼 나무도 뽀르르 잘 타고, 둥벙에서는 물오리나 다름없이 헤엄도 잘 쳤다.

물론 명선이가 생존을 위해 남성처럼 행동했던 것이 몸에 배어서 버릇처럼 굳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그러한 행동양상을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명선이가 원래부터 그러한 남성다움의 특징이라 여겨지는 성격을 소유했는지 아니면 그것이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인지 알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특질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한 면에서 명선이란 인물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혼재되어 있는 양성성의 잠재성을 가장 풍부하게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명선이에 대한 묘사를 외양묘사와 성격묘사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명선이의 외양 묘사>

- 지저분하고 망측스러운 아이.
- 미처 세수도 하지 못한 때쫄재기
- 간드러지는 목소리
- 지집맹키로 야들야들허게 생긴 것이 영락없는 물뺨뜨기.
- 싸움을 하는데 역시 생긴 모양에 어울리게 상대방의 얼굴을 손톱으로 핏긔고 머리끄덩이를 잡는 아이

외모나 목소리로 인물의 성이 드러나는 것을 완전히 숨길 수 없다. 때문에 명선이가 여자인 것이 들통 나기 이전에도 외양 묘사에서 명선이가 여자일 수도 있다는 것이 암시되고 있다. 하지만 명선의 외양 묘사는 명선이가 여자인 것이 들통 나기 전에도 그 이후에도 많이 언급되는 편이 아니다.

다음으로는 명선의 외양 묘사가 아닌 성격과 행동을 묘사한 부분을 찾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명선이의 성격·행동 묘사는 명선이가 여자인 것으로 밝혀진 이후에 명선이의 행동에 변화가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명선이가 여자라고 밝혀지기 전과 그 이후의 묘사로 나누어서 살펴 보겠다.

명선이의 성격·행동 묘사	
여자인 것이 드러나기 전의 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 감기는 목소리에 겁 없는 눈빛의 소유자. ○ 토박이 아이들이 피란민 아이들에게 부리는 텃세가 조금도 두렵지 않아 보이는 아이. ○ 천연덕스럽게 인사를 챙기는 녀석. ○ 금가락지를 주며 자신을 있게 해달라는 아이. ○ 낫과 망태기를 쥐여 주면 버리고 그저 먹고 노는 것에 자신 있는 아이. ○ 싸움을 하는데 역시 생긴 모양에 어울리게 상대방의 얼

	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머리끄덩이를 잡는 아이
여자인 것이 드러난 뒤의 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는 짓거리마다 시골 아이들 뺨치는 개구쟁이 ○ 온갖 망나니짓에 오히려 우리의 앞장을 서곤 하는 아이. ○ 다람쥐처럼 나무도 뽀르르 잘 타고, 뚝방에서는 물오리나 다름없이 해엄도 잘 치는 아이 ○ 계집애답지 않게 배짱이 여간이 아닌 아이 ○ 부러진 다리 위에서 위험천만한 곡예를 예사로 벌여 아이들의 입을 딱 벌어지게 만드는 아이 ○ 길길거리며 머슴애들의 용기 없음을 놀리는 아이 ○ 강심을 겨냥하고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가는 한 송이 쥐바라송꽃이었다.

명선이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이며 적극적으로 행동을 한다. 또한 위축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떳떳하며 또래들과 어울릴 때에도 놀이의 흐름을 주도한다.

명선이의 행동을 명선이가 여자인 것이 밝혀지기 전과 그 이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행동의 변화가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었다. 이것으로 보아 명선이의 성격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것이 단순히 남장을 해서 남자처럼 보여야 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인간의 성격이라는 것이 고정적이지 않으며 특히 성으로 나누어 성격 특성을 정의한다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어떠한 행동 특질이 특정 성에 적합하다는 것은 편견에 지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약을 팔지 않는 약사」에서 약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약사의 소명은 약을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판단하기에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만 조제해 줌으로써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약사의 소명이라고 본다면 「약을 팔지 않

는 약사」의 약사는 직업윤리를 지키면서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인물이다. 또한 주체적으로 행동하면서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넉넉한 인격의 소유자이다.

「상록수」의 영신은 주체적이면서도 독립적인 삶을 사는 인물로 자신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농촌계몽운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늦깎이 학생, 나의 어머니」에서는 자아실현을 위하여 가족과 지인의 반대를 극복하고 성공하는 어머니가 등장한다.

「일레인 이야기」에서는 입양한 아들에게 뿌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한국어를 배우는 일레인이라는 여성이 등장한다.

제 7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 중에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영위하는 여성 주인공 중에서 학업에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인생을 사는 인물은 「늦깎이 학생, 나의 어머니」의 어머니와 「일레인 이야기」의 일레인이 있다. 두 인물의 공통점은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에 대한 강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태도를 삶을 산다는 것과 어머니라는 것이다. 차이점으로는 「늦깎이 학생, 나의 어머니」에서 어머니는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해서 공부를 계속했고 「일레인 이야기」에서 일레인이 공부하고자 했을 때 주변의 반대에 부딪히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늦깎이 학생, 나의 어머니」에서 어머니의 학업 동기는 자아실현이었고 「일레인 이야기」의 일레인의 학업 동기는 아들의 뿌리를 찾아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도 다르다. 작가는 일레인의 일과 공부에 대한 열정 외에도 일레인이 해외에서 아이를 입양해와 아이의 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점 때문에 더욱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나 같은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인종과 문화가 다른 먼 나라에서 아이들을 데려와 입양하는 사람들의 경지를 이해한다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녀가 입양한 자식을 위해 그토록 애를 쓰는 것을 보고는 말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학업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두 인물이 모두 다 어머니라는 점에서 교과서가 고전적인 어머니 상⁹³⁾에서 약간 변형된 새로운 모성이데올로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예전이 나 지금이나 ‘어머니’란 위치는 특수하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통설도 있듯이 ‘어머니’는 다른 여성보다 ‘특별한 존재’로 인식된다. 그래서 어머니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텍스트가 교과서에 제시되어도 그것이 반드시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지도를 높여주지는 않을 수 있다. 물론 이 두 작품이 무조건 모성 이데올로기에 충실하게 반영한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이렇게 긍정적인 여성등장 인물들이 소개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학생들이 그 소개에 비례하여 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려 하는 것이다. 특히 「일레인 이야기」에서 일레인의 공부에 대한 열의는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입양한 아들의 뿌리를 찾아주기 위한 모성애에서 발로한 것이기 때문이다.

2) 자기 반성적 성찰의 여성 주인공

오정희의 「소음공해」에는 자의식이 강한 여주인공이 하루 동안 겪은 일에 대해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화자는 아침에 아들들을 학

93) 남편과 아이를 위해 희생하고 자신의 자아실현이나 의견반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여성상. 어머니란 이름만으로도 그 모든 희생이 자아포기라는 비판을 덮고도 남을 만하다.

교에 보낸 뒤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에 온 후 겨우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된다. 화자는 그 시간을 ‘오로지 내 시간’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 시간에 의미부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이들이 올 때까지의 서너 시간은 오로지 내 시간인 것이다.

또한 주인공은 가족들과 함께 집에 있을 때의 공간과 시간개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아이들은 머리가 커져 치마폭에 감기거나 귀찮게 치대는 일이 없이 “다녀왔습니다.” 한 마디로 문 닫고 제 방에 들어앉게 마련이지만, 가족들이 집에 있을 때에는 아무리 거실이나 방에 혼자 있어도 혼자 있다는 기분을 갖기 어려웠다. 사방 문 열린 방에서 두 손 모아 쥐고 전전긍긍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형국이었다.

이것은 마치 버지니아 울프가 여성이 자기만의 글을 쓰려면 반드시 돈과 자기만의 방을 소유해야 한다고 했던 말을 상기시킨다. 자신만의 공간을 소유하지 못한 여성은 사고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마저 위협 받는다. 사고하지 못하는 여성은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살기 쉽다. 「소음공해」의 주인공은 자신이 지켜야 할 자의식이 그러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다음에서 나타난 주인공의 고백을 보면 그러한 것이 더욱더 드러나게 된다.

첼로의 감미로운 선율이 흐르고, 나는 어슴푸레하고 아득한 공간, 먼 옛날로 돌아가는 듯한 기분에 잠겨 들었다. 몽상과 시와 꿈과 불투명한 미래가 약간은 불안하게, 그러나 기대와 신비한 예감으로 존재하던 시절,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리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시절로……. 사람이 단돈 몇 푼 잃는 것은 금세 알아도 본질적인 것을

잃어 가는 것에는 무감하다던가?

본질적인 것을 잃어가는 것이라는 표현에도 알 수 있듯이 주인공은 자신의 상황을 상실로 규정짓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무력감, 자의식의 완전한 표출의 좌절,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데서 오는 상실일 것이다. 자신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주인공은 가족들로부터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이상과 현실의 거리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흔히 가정주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족으로부터 찾으려는 기존의 다른 인물 유형과는 달리 화자는 자신의 존재감을 주부로서가 아니라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확인 받고 싶어한다. 그것은 주인공이 봉사를 하는 이유가 남을 돕고 있다는 허영심이나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요구하는 곳에서 시간과 힘을 내어 일한다는 뿌듯함’을 느끼기 위해 봉사를 한다는 고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화자가 가족과 함께 있는 집안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전전공공한 태도로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고백하는 부분에서는 모성이데올로기가 여성의 본성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 강요된, 여성에게 때로는 불편한 희생을 요구하는 인위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모성이데올로기에 따르면 여성은 모성본능이 있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육아와 가사에 적합하며 가정의 일을 돌보아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모성에 때문에 여성은 가족을 보살피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기꺼이 자기희생을 감수한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소음공해」의 주인공의 고백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여성이 그러한 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미루어 보면 모성이데올로기가 말하는 여성에게 내재된 모성의 실체는 과장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여성의 가사노동을 정당화 시키는

억압적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⁹⁴⁾

물론 주인공의 모순된 측면도 있다. 주인공은 봉사활동을 하는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층간 소음 사건을 겪으며 정작 자신의 제일 가까운 이웃⁹⁵⁾의 장애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부끄러움에 휩싸이게 된다. 모순된 면을 보여주는 인물은 독자들에게 쉽게 비판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주인공은 자기 반성적인 성찰을 모습을 보여주면서 모순된 점을 극복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인물로 평가될 수 있다. 현대문학의 주인공 중에서 모순이 없는, 혹은 있다 해도 그것을 최대한 감추어서 드러내는 인물이 등장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현대의 독자와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인물로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현대인은 고민하고 갈등하며 자기성찰의 과정을 거쳐 자기극복과 정체성의 확립을 해야 하는 운명이 놓인, 총체성의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소음공해의 주인공은 모순된 점에도 불구하고 독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이며 자기 반성적 성찰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사고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

「현이의 연극」은 초등학교 3학년인 딸의 연극을 보러 갔던 한 어머니가 깨달은 바를 간결하고 솔직하게 적은 수필이다. 딸인 현이가 출현하는 연극을 보러 갔지만 등장인물 속에서 딸을 찾을 수 없던 어머니

94) 실제로 가족의 정서적 안정 및 유대의 역할기능과 관련한 여성학적 관점은 매우 비판적인데 이재경은 "정서적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가정은 타 가족원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주는 일터일 뿐이며, 남편과 자녀에게는 가정이 은신처 또는 최소한의 여가의 장소로 경험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여성에게 가정은 노동의 장소이다"고 말한다.

이재경, 「정의의 관점에서 본 가족」, 『가족철학』, 이화여대출판부, 1997. 김태현·이문숙, 「21세기에 만나는 여성의 삶」,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pp.64-65에서 재인용.

95) 여기서 화자에게 깨달음의 기회를 주는 장애인 또한 여성임을 주목해 본다면 화자가 미처 깨닫지 못한 이웃의 소외를 자각시켜주는 계기를 또 다른 여성이 제공했다는 것은 어쩌면 여성 스스로 가지는 모순의 해결의 실마리는 외부-남성-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여성-에서 오는 것임을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는 무대 배경인 풀잎들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딸 현이라는 것을 알고 실망한다. 하지만 현이는 어머니가 자기를 보아 주리라는 확신 때문에 맡은 역에 최선을 다한다. 공연이 끝난 뒤 현이는 공연에서의 실수를 떠올리며 어머니가 차라리 자기를 보지 못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현이 어머니는 이런 현이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잠시나마 현이의 배역에 실망했던 자기를 반성하고 현이에게 미안해한다. 현이의 어머니는 현이를 통해서 최선보다는 최고를 지향하는 자신의 사고방식이 부끄러운 것임을 깨닫게 된다.

주인공이 모순적인 면을 드러내고 그것을 깨닫는 과정을 보여주는 점에서 이 글의 구조는 「소음공해」와 비슷하다. 물론 「현이의 연극」의 어머니는 「소음공해」의 어머니가 보여준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나 모성이테올로기의 허상적인 점까지 드러내지는 않는다. 비록 현이의 어머니가 「소음공해」의 어머니보다 성찰의 폭이 깊거나 성찰 대상의 다양성 측면⁹⁶⁾에 풍부하지는 않지만 주체적인 사고과정을 보여준, 비교적 긍정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누구나 어떠한 경험을 한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고 현실에 그 깨달음을 반영하지는 못한다. 같은 사건을 겪어도 누군가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자각하고 누군가는 인지조차 하지 못한다. 깨달음을 얻고 변화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성적인 사고능력과 자기 반성적 성찰력이 뒷받침 되어주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현이의 어머니는 비교적 긍정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96) 「소음공해」의 성찰 대상이 이웃간의 소외의식과 가정 내의 여성에 대한 역할과 모성이테올로기라고 한다면 「현이의 연극」에서는 사소한 역할의 소중함 정도가 되겠다.

2. 부정적인 여성상

1) 수동적·운명 순응적 여성 주인공

「국물 이야기」는 식탁에 국물이 사라지면서 우리들의 정서 또한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수필로 이기적이고 각박하게 변해 가는 현실의 이유를 음식 문화에서 찾으려 서구화된 식탁문화에 길들여진 자신들의 아이들과 반대로 국물을 챙기려 하는 작가의 가정 이야기를 예시로 들고 있다.

「국물 이야기」에 등장하는 작가의 부인은 식단 짤 때 자신의 선호를 반영하지 못하고 아이와 남편의 기호를 반영하면서 눈치를 본다. 또한 이 작품에서는 식단을 짜고 음식을 만드는 것이 여성에게만 국한된 역할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동적인 여성상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병어리 삼룡이」의 색시는 신랑에게는 ‘벌어먹을 년, 이년’ 등으로 명명되며 폭력의 대상이 되지만 병어리 삼룡이에게는 ‘선녀, 공중에 있는 달보다 더 더 곱고 별들보다도 더 깨끗한 것’으로 묘사된다. 이 소설은 서술이 병어리 삼룡이의 시각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색시가 남편이나 삼룡이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나 대응표현이 생략되어 있다. 남편이 자신의 머리채를 쥐어 잡아 마루 한복판에 내동댕이쳐도, 색시는 그저 ‘팔자 한탄을 하고서 날마다 밤마다 우는 사람 되었다’라는 구절로 색시의 심정묘사가 대체된다. 남편에게 심하게 구타를 당했을 때에도 색시의 대응은 ‘한 손에 길다란 명주 수건을 들고 자살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때 삼룡이가 들어와 그 수건을 뺏으려 애쓸 때에도 색시의 행동 묘사는 ‘한 팔로 병어리의 가슴을 밀치며 뺨당기는 것’으로 일관되는데

이처럼 오해 받기 쉬운 위급한 상황에서 삼룡이와 그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면 무어라고 소리 지르거나 말을 할 만한데도 색시는 목소리를 빼앗긴 사람처럼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색시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행동은 ‘죽으려고 이불을 쓰고 누워있는 너무도 수동적인 것’이었다. 이 소설의 서술관점의 특성상 색시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묘사에 제약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색시의 반응은 너무나 소극적이다. 비록 예전의 시대에는 운명에 순응하고 수동적인 여성상이 많았고 그것이 미덕으로 치부되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이렇게 과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수동적인 여성상을 계속해서 접하게 된다면 그것을 시대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기 보다는 수동성을 여성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속성이라고 생각하게 되기 쉽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요람기」에는 화자의 ‘누나’와 ‘무당네 딸 득이’가 등장한다. 교과서 본문에 수록된 부분에서 누나는 ‘수틀을 받쳐 들고 송학(松鶴)에 달을 놓고 있거나’ ‘다림질감이나 옥수수와 감자를 가지고 온 동무들과 추석 옷감 이야기며, 누구는 어디 혼삿말이 있고 누구는 시집살이가 고 되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또한 본문에서 묘사되는 무당네 딸 득이는 특별히 주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부분이 없었고 ‘이대룡을 따라’ 먼 마을로 살림을 떠난 것으로 그려짐에 따라 이 분류에 속하는 인물로 구분하여 보았다.

「요람기」의 배경 시대는 1960년대 즉, 우리나라에서 산업화가 급격하게 추진되고 있던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배경이 ‘어느 산골’이기 때문에 소년의 주위는 시대의 흐름에 비교적 덜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누나의 모습도 산업화 시대의 여성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전근대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인물 설정이 소설의 시

대적 배경과 공간을 감안하여 볼 때 크게 부적합한 설정은 아니지만 이러한 인물의 잦은 등장이 고향에 대한 향수나 시대적 상황으로 정당화되어 고착화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학생들이 그러한 여성들에게서 보이는 속성을 여성성의 주요 속성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교과서에 다양한 여성상의 등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미리내」의 은하는 소년의 장난 때문에 심장이 약해져서 당분간 휴학을 했어야 했을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이 전학 간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에 십 리를 뛰어올 정도로 헌신적인 모습을 보인다.⁹⁷⁾ 자신이 좋아하는 소년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여성상의 유형에 속한다고 보았다.

「숨쉬는 영정」에서의 어머니는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대를 잇고, 비록 전쟁이 일어나 목숨이 위태롭다고 하더라도 가문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린 아들들을 피란가게 하고 본인은 혼자 남아서 마을과 집을 지키게 되는데⁹⁸⁾ 어머니는 자신의 삶이 며느리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존의 당위적인 역할 관을 그대로 수용하여 믿고 실천하는 인물이다. ⁹⁹⁾

「사랑 손님과 어머니」의 어머니는 자신을 제약하는 사회의 현실에 소극적으로 반응한다. 이 작품에는 옥희 어머니가 옥희를 안고, 어떤 때는 울기까지 하면서 “엄마는 옥희 하나면 그뿐” 이라고 말하는 행동이 네 번이나 나온다. 최시한은 이를 두고 옥희 어머니가 재혼을 단념하

97) 그런데 험레벌떡 뛰어오는 소녀가 있었다. 은하였다. 어디 가느냐고 물었다. 배웅을 하러 나왔다는 것이다. 십 리나 되는 어두운 새벽길을 혼자서 온 것이다. 무섭지 않느냐고 했다. 늦어서 떠나는 걸 못 보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뿐, 뛰어오느라고 몰랐다는 것이다.

98) “무슨 말이 이렇게 많으냐? 어서 가지 않으면 우리 집안은 대가 끊기고 만다. 어서 가는 것이 돌아가신 아버지께 대한 효도다.” “내 걱정은 마라. 난 대대로 선조가 살던 마을과 집을 봐야 한다.”

99) 적용학습에서는 그러한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한지 유추해보게 하고 있다.

는 행동은 사회와의 대립에서 진 것이지 스스로 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어머니는 미망인의 딸을 ‘과부 딸’이라 부르며, 재혼하는 여자를 ‘화냥년’이라고 불렀던 일제강점시대 한국 현실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욕망을 포기했다고 말하고 있다.¹⁰⁰⁾ 비록 여러 번의 갈등 속에서 그 굴레를 이겨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¹⁰¹⁾ 다시 그 제약에 걸려 스스로 포기하고 현실을 순응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순응적 여성으로 볼 수 있다.

이 소설은 ‘소설의 시점’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수록되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비판이 두 가지를 소개하며 다음과 같다. 최시한은 「사랑 손님과 어머니」의 문제점이 이렇게 소극적인 여주인공을 내세웠다는데 있다기 보다는 이러한 여성이 당대 사회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아이의 시선에서 바라보게 함으로써 그 사회적 제약을 미화시켰다는 점에 있다¹⁰²⁾ 고 지적하면서 이 소설이 시점을 가르치기 위한 교재로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 다른 차원에서 이 소설의 수록을 문제시 삼은 이남호는 교실에서 시점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작품 자체에 대한 이해보다 시점에 대한 이해가 더 강조되면서 「사랑 손님과 어머니」라는 작품은 마치 시점에 대한 이해의 보조 자료인 것처럼 취급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¹⁰³⁾

학생의 창작 작품인 「비누 인형」은 교과서 2학년 2학기 대단원 5. 창작의 즐거움에 실린 소설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직장생활을 하게

100) 최시한, 『소설의 해석과 교육』, 문학과 지성사, 2005, p.61.

101) 그토록 소심하고 소극적인 인물이 몇 번의 쪽지를 건네고 달걀을 건네 준 것 자체는 자신에게 씌인 굴레를 벗어나보려는 일종의 소극적인 시도였다고 보여진다.

102) 최시한은 이를 두고 작가한테 자연화되어 있는 남성중심주의가 초점화 방식의 선택에 작용되었고 이 작품에서 ‘순수하고 아름답다’는 느낌을 받은 독자들은 남성중심주의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이념과 그에서 비롯된 인습을 긍정적으로 보게 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시한, 앞의 책, p.68.

103) 이남호, 앞의 책, pp.413-414.

된 어머니가 출근을 한 후에는 항상 외롭게 혼자 지내는 연희에 관한 이야기이다. 연희는 빨랫비누로 인형을 만들다 지쳐 잠이 들고, 이를 발견한 엄마가 비누 인형을 완성해 준다. 연희는 비누 인형과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고, 언제나 함께 있기로 약속하게 된다. 그러나 연희가 학교를 처음 가게 된 날, 창가에 두고 갔던 비누 인형은 내리는 비에 모두 비누방울이 되어 하늘로 날아가 버리게 된다.

「비누 인형」에서는 아버지,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 의식이 드러난다. 어머니는 외로워하는 연희에게 아버지는 부재하지만 항상 마음속에서 살아있어서 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라고 설명해주고 있다.

“안 돼. 비누 인형 혼자서 집에 있으려면 얼마나 외롭고 심심하겠어? 그리고 언제나 곁에 있기로 비누 인형하고 약속했던 말이야.”

엄마는 울먹이는 연희를 꼭 안아 주었다.

“연희야, 꼭 곁에 있지 않아도 친구가 될 수 있단다. 아빠도 곁에 있진 않지만 엄마는 늘 아빠와 이야기를 나눈단다. 아빠에게 연희가 학교에 가는 것도 말씀 드렸는걸.”

“거짓말, 아빠가 어디에 있는데?”

“여기 엄마 마음속에, 그리고 연희 마음속에 있지.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언제나 곁에 있는 거야.”

연희의 어머니는 자신의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이나 연희의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과 외로움을 적극적으로 극복해나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연희가 자신의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빨래비누로 인형을 만들려고 할 때에도 어머니는 이미 인형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을 때야 연희의 시도를 알았고 연희가 빨래비누로 인형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아서 난관에 봉착한 것을 안 후에야 인형 만들기를 도와준다. 연희가 스스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하여¹⁰⁴⁾ 인형을 만드는 시도를 하기 이전

104) 스스로의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연희는 비교적 적극적인 인물로 보인

까지는 어머니가 연희가 외로워하지 않도록 다른 방안을 찾아보았다는 단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소극적인 인물로 분류하였다.

소설 「비누 인형」 뒤에는 소설을 창작한 학생이 비누 인형의 창작 과정에 대해서 서술한 창작 과정에 대한 면담이 제시되어 있다. 이 면담 내용을 보면 이 소설의 창작 과정에서 창작자의 성 고정관념이 작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설 「비누 인형」은 카니발이라는 그룹의 노래 ‘비누인형’의 가사에서 영감을 얻어 그 줄거리를 차용하여 만들어졌다. 원래 창작 배경이 되었던 노래의 원곡에서는 주인공이 ‘소년’이었지만 학생은 창작 과정에서 ‘소년’의 성을 을 ‘소녀’로 바꾸었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노래 속에는 소년이 등장하지만, 비누 인형을 친구로 삼는다는 설정을 하기 위해서 주인공을 소녀로 바꾸었습니다. 물론, 소년이 비누 인형과 놀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보다 있음직한 경우를 생각해 보았어요. 순수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름도 연희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비누인형이 유일한 친구인 연희의 상황을 잘 살리기 위해,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는 하루 종일 일을 나가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창작 과정 속에 작용된 성에 관한 고정관념의 실체를 알 수 있다. ‘인형과 논다는 것’은 여성에게 더 적합하다는 생각과 여성은 ‘순수하고 부드러운 성향’을 띤다는 생각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당시 학생이었을 창작자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어떠한 식으로 작품에 반영이 되었고 또 그러한 작품을 학생들이 별다른 의식 없이 읽을 때 어떻게 또 다시 비슷한 고정관념을 양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다.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서 작가는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던 1970년대 도시 빈민가를 배경으로 난쟁이 일가의 삶을 통해 가난한 소외 계층과 공장 노동자의 모습, 당시 열악했던 노동 환경을 폭로, 고발하고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어머니는 무기력하고¹⁰⁵⁾, 가장의 실추된 권위를 감싸려 드는 인물이다.¹⁰⁶⁾

그리고 교과서 본문에 수록된 부분의 영희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못하는 울보이다.¹⁰⁷⁾ 심지어 영희는 울 때에도 소리를 내지 말고 울어야 하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야 하고 드러내놓고 울었다는 이유로 오빠에게 맞기도 한다.

영희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나는 영희의 입에서 손을 떼었다. 영희를 풀밭으로 끌고 들어간 것이 잘못이었다. 영희를 때려 주고 나는 후회했다. 귀여운 영희의 얼굴은 눈물로 젖었다.

오빠는 여동생을 때리고서는 후회한다. 실제로 오빠의 폭력이 여동생에게 가학적이거나 큰 상처가 될 만한 비중의 것으로 그려지지는 않는다. 여기서 오빠로 대변되는 가족 내에서의 억압은 영희에게는 사회가 영희네 가족에게 가하는 거대한 압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잘 울고 또한

105) 어머니는 쪽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중략).....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곧추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바닥을 한 번 치고 가슴을 한 번 쳤다.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 있는 알루미늄 표찰을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영희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106) “너, 매 좀 맞아야겠구나.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아버지에 대해 말을 막 하면 너 매맞을 줄 알아라.”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어머니는 “아버지는 악당도 못 돼. 악당은 돈이나 많지.” 라며 아버지를 비판하는 나에게 아버지의 역성을 든다. 교과서 수록 부분에서만 ‘아버지가 좋은 분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다.

107) 영희는 울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다. 그 때 나는 말했다. “울지 마, 영희야.” “자꾸 울음이 나와.” “그럼 소리를 내지 말고 울어.”

그 울음마저 큰 소리를 내면 안 되는 영화는 그러한 사회 체제 내에서 무력했던 모든 소외 계층 노동자들을 대변하듯 수동적이고 순응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 소설에서 난쟁이 가족의 무기력함은 남성이건 여성이건 특정성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구성원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무력감은 그들을 억압했던 당시 사회의 거대한 폭력과 억압의 무게를 환기시킨다.

「시집 가는 날」에는 실제로 갑분이와 이쁜이의 등장 비중이 매우 작다. 등장하는 장면에서도 갑분이는 ‘온갖 치장을 다 하고 마루 한 가운데 서있는 모습’으로 나오고 이쁜이는 그런 갑분이를 보고 ‘황홀히 다가 갑분이의 옷을 아래위로 만지며 감탄한다.’ 이 작품은 조선 시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것을 현대작가가 각색한 작품으로 그 시대 배경의 특성상 여주인공의 사고관은 매우 전근대적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이쁜이 역시 주체적이거나 독립적이지 않는다. 시대적 배경 때문에 여성 인물들의 성격 제시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작품에서는 갑분이의 혼담을 둘러싼 어른들-주로 남성 인물들-의 대화가 작품전체를 차지하기 때문에 여성 인물들의 소극성과 소외양상이 더 두드러지게 보인다.

1950년대 전쟁 직후 한국의 모습을 잘 드러낸 「오발탄」은 전쟁으로 황폐화된 암담한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동생의 검거나 아내의 죽음과 같은 비극적 결말은 전쟁의 암담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든 간에 가난한 월남민들은 비극적 운명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방바닥에 가지런히 놓인 빨간 어린애의 신발만 몇 번이고 쓸어 보는 아내¹⁰⁸⁾나 “가자”¹⁰⁹⁾라고 몸을 뒤흠리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 소설

108) 그 어린 것 옆에 앉은 철호의 아내는 왼쪽 무릎을 세우고 그 위에 손을 펴 깔고 턱을 괴었다. 아까부터 철호와 영호 형제가 하는 말을 조용히 듣고만 있는 그네는, 무

속의 남녀등장 인물들은 모두 다 무기력하다. 그것은 전쟁이 모두의 정신과 육체를 황폐화시켰음을 여실하게 드러내준다.

「옥상의 민들레꽃」은 아파트 주민 할머니가 자살한 사건 뒤 대책을 세우기 위해 반상회가 열리는 풍경 전후를 그리고 있다. 소시민들의 모순과 허영을 꼬집는 것으로 유명한 박완서는 여기에서는 인간들의 이기심을 잘 묘사하고 있다.

‘나’라는 주인공은 어린아이의 시각에서 어른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여기에서 소년의 어머니는 허영심 많고 허점투성이인 인간으로 묘사된다.¹¹⁰⁾

그것은 마치 엄마를 행복하게 하는 이유가 엄마의 보석 반지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 보석이 진짜라는 보석 장수의 보증 때문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미 주인공은 엄마의 보석에 대한 기호를 알 뿐만 아니라 엄마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그 값비싼 품질 보증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엄숙한 분위기의 반상회에 주인공을 데려가서 창피해 하는 엄마의 모습에 대한 묘사에서는 엄마의 소극적인 면을 엿볼 수 있다.¹¹¹⁾

흔히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헌신적이며 끝이 없다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이다. 그러한 인식이 당연하다고 통용되기 때문에

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한쪽 손끝으로, 거기 방바닥에 가지런히 놓은 빨간 어린애의 신발만 몇 번이고 쓸어 보고 있었다.

109) “가자!” 어머니는 또 몸을 뒤치었다. “그건 역설이야.”

110) 「옥상의 민들레꽃」의 어머니를 수동적·운명 순응적인 인물로 간주하여 이 분류 안에서 살펴보고자 한 이유는 어머니가 적극적이거나 자아성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흐름에 별다른 생각이나 저항 없이 세태에 수긍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111) 어른들만 모여 있으니까 회의의 분위기가 한층 엄숙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도 그 제야 내가 따라간 게 창피한 지 눈짓을 하며 나를 등 뒤로 숨기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된 여성은 그 모성이테올로기에 스스로를 적응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박완서의 「옥상 위의 민들레꽃」의 주인공의 어머니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인물이지만 역설적으로 그러한 모성이테올로기의 허위성을 폭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주인공은 자신이 어버이날에 어머니에게 드린 꽃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을 알게 되고 우연히 어머니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된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단다. 어찌다 막내를 하나 더 낳아 가지고 이 고생인지, 막내만 아니면 지금쯤 얼마나 흥가분하겠니? 막내만 아니면 지금쯤 얼마나 흥가분하겠니? 막내만 아니면 남부러울 게 뭐가 있니?”

물론 이 사건을 계기로 주인공은 자살을 결심하게 되고 그 자살을 극복하게 해준 옥상 위의 민들레꽃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구성상 꼭 필요한 적절한 설정이다.¹¹²⁾ 그리고 여기서는 부차적으로 제시되었지만 꼭 ‘어머니’라고 해서 기존의 상식처럼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모성애로 충만해서 가족을 위한 희생마저 달갑게 여기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라고 해서 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기르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양육에 대한 부담스러움과 고충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기존에 절대시되었던 모성이테올로기의 허를 파고든 것이 아닌가 싶다.

「섬마을 아이들」의 구호물자 편에는 아들에게만 우유가루를 주려는 어머니가 등장하는데 어머니는 남아선호사상에 물든 인물로 딸과 아들을 차별하는, 당시의 가치관을 그대로 수용한 소극적인 인물이다.

112) 주인공이 할머니가 자살을 결심하게 된 심정을 이해하고 그 해결 방안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주인공의 고통은 구성상 꼭 필요한 설정이었다.

“저 놈의 가시나 새끼털, 즈그 동상 먹으라고 좀 놔두제마는 퍼묵고 있는 것 좀 봐라.” 어머니는 누나들을 욕박질러 나를 흐뭇하게 했는데, 내가 거의 반 되는 먹었던 것 같다.

2) 이기적인 여성 주인공

모성은 그 사랑을 받는 이의 내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한없이 따사롭다. 그러나 외부에서 바라볼 때에는 모성은 이기적인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강아지 똥」에서는 그러한 모성의 이중적인 양면성을 외부적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다.

「강아지 똥」의 엄마 닭은 권위 있고 위엄 있는 인물로 등장하는데 강아지 똥을 무시하다가 강아지 똥에게 직접 너를 자신의 새끼들의 먹이로 생각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강아지 똥」의 엄마 닭은 의인화 된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식들이 먹이를 위해 강아지 똥을 먹겠다는 언행의 잔혹성은 반감된다.

“옳지, 아이들은 역시 잘못했을 때는 곧장 용서를 비는 것이 좋아.” 이렇게 엄마 닭은 위엄을 보이고는, 이어서 “널 들여다본 것은 행여나 우리 아기들의 점심 요기라도 될까 싶어서 본 거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억 속의 들꽃」에서는 명선이 외에 또 다른 여성이 비중 있게 등장한다. 그것은 바로 화자의 어머니이다. 어머니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명선이의 금가락지의 행방을 추궁하고 명선이를 잘 돌봐주는 척하다가 명선이가 더 이상 금가락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자 어떻게 하면 내쫓을 수 있을까 궁리하는 모습을 보인다.

괜히 말썽이나 부리고 편둥편둥 놀면서 삼시 세 끼 밥이나 축내는 그 뒤통거리를 어떻게 하면 내쫓을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하는 게 어머니의 일과였다.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다른 집 자식의 목숨이나 안전에는 관심이 없는 어머니의 모습은 명선이의 입장에서 보면 한없이 냉혹할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이 어머니란 인물은 전쟁이 사람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 수 있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하고 앞서 언급했던 모성의 이중성을 잘 드러내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리고 모성애가 자신의 자식들에게는 희생과 관대함으로 작용되지만 타인에게는 모성애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입히거나 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이중성을 환기시킨다.

「옥상 위의 민들레꽃」에서는 주인공인 소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등장인물들이 이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여성 인물이 이기적으로 등장한다고 해서 그것을 남성 인물들과 변별적으로 보아 특별히 여성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켰다고 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우선 「옥상 위의 민들레꽃」에 등장하는 이기적인 여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소설에서 ‘똥똥한 아줌마’는 두드러지게 이기적인 여성으로 등장한다. 이 아줌마는 다른 남자 인물들이 ‘서로 돕기회 만드는 것을 주장한 아저씨’, ‘회장님’, ‘젊은 아저씨’, ‘노 교수님’ 등으로 언급된 것과는 달리 외모의 특색을 따서 명명되고 있다. 위의 인물들 모두가 이기적이어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같지만 이 아줌마는 외모와 관련되어서 명명되고 있는 유일한 인물인데 이는 작가가 인물의 부정적인 면을 가장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의 여성의 외모에 대한 관념¹¹³⁾을

113) 여성에게 아름다움은 미덕이자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곤 한다. 그래서 예쁜 여성은 문학작품 속에서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지곤 한다. 마음씨 착한 여성등장인물이 외모도 빼어난다던가 하는 식의 묘사가 그 한 예이다. 때문에 똥똥하거나 추한 외모의 여성 인물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묘사되곤 한다.

무의식적으로 발동한 것으로 보인다.

「원미동 사람들」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원미동 사람들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준다. 「원미동 사람들」에서는 동네 슈퍼 사이에 벌어지는 고객 확보 전쟁과 그것을 이용하려 드는 주민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김포 슈퍼의 개업일에는 마을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가 과자 한 봉지, 두부 한 모라도 사주면서 부지런한 내외의 앞날을 격려해 주기도 하지만 형제 슈퍼와 김포 슈퍼, 싱싱 청과물의 가격 경쟁이 시작되자 마을 사람들은 세 가게가 경쟁하게 된 것을 속으로 좋아하며 물건 값이 내릴 것을 기대하게 된다. 이러한 마을 사람들의 행태를 교과서의 화자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새해 들면서 김포와 형제의 공방전이 여기에 이르자, 오히려 살판난 것은 동네 여자들이었다.

특히 고흥택은 노골 적으로 몇 십 원 때문에 당장 산 물건을 되 물리기도 하는데 마을 사람들의 핀잔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만 손해 보았다는 생각에 그 행동을 멈추지 못한다. 고흥택의 말을 빌리자면 다음과 같다.

“그나저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옛말을 다 틀린 말여. 고래들이 싸우는 통에 우리 같은 새우들이 먹잘 게 좀 많은가 말여.”

물론 이 소설의 화자가 고흥택을 아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경호네와 형제 슈퍼의 김 반장이 휴전 협정을 맺어 두 집이 같은 가격으로 물건을 팔게 되자 아쉬워하는 고흥택을 다음과 같이 묘

사하고 있다.

그래도 고흥택은 나이가 많으니 솔직해도 흠이 되지 않는다.
“진작 이렇게 되었어야 했지만, 그래도 어찌 좀 아쉬운디…….”

아마도 이것은 원미동 사람들의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행태가 그들의 넉넉하지 못할 살림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매일의 삶을 어떻게 해서든 영위하기 위해 안간힘 쓰는 인물들을 통해 생활의 고달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만들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소설의 여성들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원미동 사람들 중 여성들은 그들 또한 생존의 경쟁을 매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이익을 계산하며 슈퍼를 옮겨 다니는 이기적인 소비자 또는 소문을 만들어내고 전하는 수다쟁이의 이미지로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서술될 때마다 그 행위의 주어는 원미동 ‘사람들’이 아니라 ‘여자들’이 된다. 여자들이 주어로 된 문장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 참말로 딱하게 된 것은 원미동 여자들이었다.
- 새해 들면서 김포와 형제의 공방전이 여기에 이르자, 오히려 살판난 것은 동네 여자들이었다. 구입할 게 많다 싶으면 세 정거장쯤 떨어져 있는 시장으로 가던 여자들이 시장 발걸음을 끊은 것도 새해 들어서야 버릇이었다.
- 이제는 어느 집으로 가든 간에 같은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밖에 없었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동네 여자들은 내심 김이 빠졌다.
- 원미동 여자들이야 굳이 싱싱 청과물을 들러야 할 이유가 없었다.
- 64번지 새택이 분개하였지만, 여자들은 김 반장 쪽이 아무래도 나뻤다는 쪽으로 의견들을 모았다.

또한 이 소설에서 여성인물의 제시 방법 외에 또 하나 지적할 점은 많은 여성이 등장하지만 수만 증가했을 뿐 극의 실질적인 비중은 남성에게 향해 있다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 중심 사건은 원미동에서 일어난 경호네와 김반장의 싸움인데 비중은 싸움을 지켜보는 여자들이 아니라 싸움의 당사자인 김반장과 경호아빠 싱싱청과물 주인에게 향해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타인의 이익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논리는 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지배하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하에서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일 지도 모른다. 「원미동 사람들」에서는 특별히 누군가가 착하다거나 혹은 특별히 더 이기적이라고 할 수 없다.¹¹⁴⁾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다고 여겼던 생존의 방법들을 문학작품을 통해 객관적으로 보게 함으로써 읽는 이로 하여금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다.

3. 여성상의 부재 또는 주변화

1) 주변적 인물로서의 여성 주인공

여성 인물이 주변적인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성인물이 작품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 성격을 유형화 시킬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게 등장한 경우를 분류하여 보았다.

「운수 좋은 날」은 1924년 『개벽』에 발표된 현진건의 소설이다. 1인칭 소설을 즐겨 쓴 작가로서는 예외적인 3인칭 작품으로 일제 강점하의 하층민들의 궁핍한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114) 이 작품에서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계산적이면서도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이기적인 정도가 성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운수 좋은 날」에는 주요 여성이 두 명 등장한다. 김첨지의 아내와 김첨지가 손님을 물색하려고 거리에서 말을 건넨 한 여성이다. 김첨지의 손님으로 등장하는 여성은 스쳐 지나가듯 그려졌기 때문에 성격을 알 수가 없었고 김첨지의 아내는 병을 앓아서 침상에만 누워 있다가 죽는 것으로 나와서 그 성격 유형을 분류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등장하는 두 여성 인물을 대하는 김첨지의 태도나 작가에 의해 설정된 신분설정을 보면 여성 비하적인 측면이 있다.

우선 거리에서 만난 한 여성을 예로 들어보겠다. ‘양머리에 뒤축 높은 구두를 신고 망토까지 두른’ 그 여성에 대한 표현은 ‘기생 퇴물’, ‘난봉 여학생인 듯한 여편네’, ‘마마님이신지 여학생이신지-요새야 어디 논다니와 아가씨를 구별할 수가 있던가’, ‘빌어먹을 깍쟁이 같은 년’ 등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표현은 서술자가 인물을 묘사할 때 등장하기도 하고, 술집에서 김첨지와 치삼이의 대화 속에서 김첨지가 직접 언급한 것들이기도 하다. 아내 이외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여성의 신분이 퇴물기생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작가가 여성을 보는 이분법적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다. 더군다나 그 여성을 가볍게 보고 ‘추근추근하게도 그 여자가 들고 있는 일본식 버들고리짝에 제 손을 대었다가 혼쫓이 난’ 김첨지는 술자리에서 그 여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김 첨지는 교묘하게도 정말 찌꼬리 같은 소리를 내었다. 모든 사람은 일시에 웃었다.

“빌어먹을 깍쟁이 같은 년, 누가 저를 어찌나? ‘왜 남을 귀찮게 굴어!’ 어이구, 소리가 채신도 없지, 허허. 웃음소리들은 높아졌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그러한 조롱의 주체가 김첨지로 그치지 않고

슬집에 있는 여타의 사람들로 확대됨을 알 수 있는데 여성비화의 공론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내를 지칭하는 단어로는 ‘그녀’, ‘조밥도 못 먹는 년’ 이 등장한다. 비록 하층민인 김첨지의 삶을 드러내고 비극에 대비되어 김첨지의 아내에 대한 애정을 더 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언행 설정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여성 비하적인 발언과 계속되는 욕의 등장은 수업 시간에 지도상에 유의가 필요하다.

이 소설은 앞서 언급했듯이 3인칭 시점의 소설이다. 그러나 서술적 시점이 3인칭이라고 하여 모든 인물과 동일한 거리를 두고 서술되지는 않는다. 비록 객관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나 김첨지의 하루를 묘사하면서 김첨지의 시각에서 보이는 사물들과 인물들의 행태를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외양적으로는 객관성을 담보하려고 하나 실제로는 어떤 특정인의 시각에서 세상을 그려내는 것과 같다. 단편적으로 보면, 서술에 있어서도 김첨지의 말을 인용한 부분도 있고,

그 때도 김첨지가 오래간만에 돈을 얻어서 좁쌀 한 되와 십 전짜리 나무 한 단을 사다 주었더니, 김 첨지의 말에 의하면, 그 년이 천방지축으로 냄비에 대고 끓였다.

김첨지의 심리를 묘사한 부분도 있는데,

혹은, 김 첨지도 이 불길한 침묵을 짐작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전에 없이, “남편이 들어오는데 나와 보지도 않아, 이년.” 이라고 고함을 친 게 수상하다. 이 고함이야말로 제 몸을 엄습해 오는 무시무시한 증을 쫓아 버리려는 허장성세인 까닭이다.

이에 반해 아내나 앞서 언급한 여성의 심리 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

는 점에서 비록 시점은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는 듯하였으나 기타의 인물들보다 김 첨지와와의 거리가 훨씬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여성인물이 매우 부차적으로 등장하는 경우로는 「육체미 소동」을 들 수 있다. 「육체미 소동」은 근육을 남성성의 상징이라고 여기는 소년이 자신의 근육을 키우려다가 임시방편으로 어머니의 속옷을 걸쳐 입은 것이 신체검사 때 들키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그리고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동민의 어머니나 누나는 매우 부차적인 인물로 잠깐 등장한다. 어머니가 등장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어머니는 동민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며 그저 도시락에 달걀을 싸주면서 ‘영양의 균형을 생각하는’ 자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권하는 인물로 나온다.

어머니, 주방에서 도시락 들고 나오며,

재복: 덮었구나. (한숨) 촌스럽게 만날 뭘예요” 밥 위에도 달걀부침 얹어 다니는 애가 어딴어요, 요즘 세상에.

어머니: 달걀이 완전 식품이라는 거 가정 시간에 안 배웠니? 바쁜 아침이지만 어머니는 영양의 균형을 생각한단다. 암탉이 이 달걀을 낳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어머니가 이렇게 예쁘게 달걀을 부치느라고 얼마나 정성을 들였을까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 너, 그래야 키 커.

「내 생애 가장 따뜻한 날들」은 군고구마 장수와 골목길 가게 아저씨의 미담을 떠올려 제시하고, 이러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은 수필이다. 작가는 이 수필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았던 ‘군고구마 장수’, ‘골목길 가게 아저씨’와 함께 보냈던 때가 생애의 가장 따뜻한 날이었다는 것과, 사람 사이의 온정을 잃어 가는 이 때에 이러한 따뜻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표현하였다. 작가가 성인이 되어도 기억에 남을 만큼 고맙

고 따뜻한 군고구마 장수와 골목길 가게 아저씨는 다 남성인데 유일하게 등장하는 여성은 어머니이다. 여기서 어머니는 중심인물로 등장하지도 않고 부차적으로 등장하면서 성격적으로 별다르게 부각된 측면이 없었다.

「흰 종이 수염」은 소년 주인공을 내세워 6·25 전쟁 직후의 빈곤하고 참담했던 삶의 모습을 보여 주는 소설이다. 무력한 시골 목수인 동길의 아버지는 6·25전쟁 때 노무자로 동원되어 팔 하나를 잃고 돌아온 뒤, 아들 동길의 밀린 사친회비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얼굴에 흰 종이 수염을 붙이고 극장 광고판을 메고 다니게 된다. 작가는 주인공 ‘동길’이가 겪는 소년 시절의 체험을 민족 수난의 역사적 상황과 밀착시켜 그려냄으로써 그로 인한 삶의 황폐화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거의 유일한 여성 인물로 등장하는 동길의 어머니는 매우 부차적으로 등장하며 등장할 때에도 주로 부엌에서 음식을 하거나 슬픔에 차 눈물을 훔치는 모습으로 제시된다.

2) 여성 인물의 부재

「소설 동의보감」에서 허준은 몇 년을 준비해온 과거를 포기하고 마을에 남아 병자들을 돌보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허준에게 과거를 보러 가자고 종용하는 우공보와 허준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하소연하는 많은 병자들이 나온다. 그런데 허준에게 치료를 부탁하는 사람들과 허준의 대화를 잘 살펴보면 그 대화의 주체 중에 불특정 다수¹¹⁵⁾라고 지칭된 자 외에 성별이 드러난 사람들은 모두다 남자였다.¹¹⁶⁾

들판이라는 공간에서 평온하게 살아가던 형제가 갑자기 나타난 측

115) 마을 성인 남녀 십여 명, 그 중 몇, 병자, 마을 사람들

116) 사내, 띠꺼머리 총각, 촌로, 노모를 업고 달려와 아직 숨이 찬 사내, 티눈이 난 총각

량 기사의 농간에 빠져 우애를 잃게 되지만, 민들레꽃을 보면서 다정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마침내 벽을 허물게 된다는 내용의 희곡 「뜰판에서」는 여성이 부재한다. 희곡의 내용만을 보자면 측량기사와 조수들의 성별은 드러나지 않아서 특별히 여성부재의 작품이라고 명확하게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우선 성이 명시되지 않은 인물들을 제외하여도 남은 등장인물들은 다 남자이다. 그리고 실제로 교과서에서는 성이 불분명한 측량기사와 조수들을 남성으로 간주하고 교과서의 삽화¹¹⁷⁾에 측량기사와 조수들을 남성으로 그리고 있다. 때문에 학생들은 희곡 「뜰판에서」의 등장인물들이 모두 남성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¹¹⁸⁾

「바람을 파는 소년」에서 소년은 할아버지와 함께 시장에 갈 때에는 할아버지가 만든 대나무 부채가 잘 팔릴 것이라는 생각에 들떠 있다가 옆에 있던 나일론 부채가 더 잘 팔리자 대나무 부채가 초라하고 볼품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슬프고 화가 나게 된다. 이 때 할아버지의 손님들이 할아버지의 대나무부채 부채 칭찬을 늘어놓고 다녀간 뒤에는 할아버지와 부채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 이 작품에서도 여성은 부재한다.

이시형의 「축복받은 성격」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항상 노력하지만 성격이 내향적이어서 고민인 의과대학원생에게 정신과 의사인 화자가 조언을 해주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그 학생이 남학우라는 이야기가 없지만 삽화¹¹⁹⁾에 그 학우가 남학생으로 그려져 있어서 그 학생을 남성으로 간주하고 여성의 부재의 분류에 넣어보았다.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작품의 주인공이 특정 성으로 한정되어 있거

117) 제7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 2-2, p.120.

118) 이는 교과서에 수록할 작품의 목록, 본문에 실을 부분에 대한 선택에만 편집자들의 사고가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삽화 등의 수록에도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투영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119) 제7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 2-1, 교육인적자원부, 2002, p.76.

나 주인공의 성별로 그 비중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면, 학생들이 문학작품을 통해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만나고 간접경험을 쌓는다고 볼 때 성별에 따른 우월의식이나 잘못된 성 역할 등과 같은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교과서에 수록될 작품과 발췌될 부분의 선택에 있어서는 특정 성에 더 우호적으로 편중되는 양태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 세상에는 여성만이 존재하는 집단도 남성만이 존재하는 집단도 흔하지 않다. 특정한 성이 부재하는 상황이나 공간이 있다면 어떤 특수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정당화되지 않는 상황이나 공간에서 특정 성별의 인물들만 교과서에 등장하거나 인물의 비중이 성별로 차이가 난다면 학생들에게 왜곡된 세상을 보여주게 되는 셈이다.

4. 여성상과 남성 이데올로기

1) 남성 중심적 시각 -유년기를 다룬 작품

아이들은 소설이나 수필을 읽으며 주인공이나 화자의 시선을 자기의 것으로 체화시킨다. 글을 읽는 동안 묘사되는 사건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일차적으로는 서술자의 시각에서 세상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주인공의 연령이 자신들과 비슷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를 읽을 때에는 그 수용과 공감대 형성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녀·소년의 이야기를 다룬 산문은 학생들에게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따로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결과 소녀·소년을 주인공으로 다루고 있는 산문의 대부분이 여성 부재로 결과를 맺거나 객관적 서술양태를 유지하는 듯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소년의 시각

에서 서술되는 산문이 많았고 어른이 된 남성이 소년시절의 소녀를 회상하는 형식으로 주어진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 7차 중학교 국어교과서에서 소녀·소년을 그리고 있는 현대 산문은 「소나기」, 「요람기」, 「미리내」, 「기억 속의 들꽃」, 「동백꽃」, 「봄바람」이다. 그런데 이 작품들 속에서 앞서 언급한 기준에서 제외되는 것은 「동백꽃」 뿐이다. 다들 여성이 죽거나(「소나기」 120), 「기억 속의 들꽃」 121)), 여성이 떠나거나(「요람기」 122), 「봄바람」 123)), 소녀를 떠난 소년이 훗날 회상형식으로 소녀에 대해 서술하는 방식이다. (「미리내」 124) 「미리내」의 경우는 소녀와의 이별을 경험한 소년이 성장하여 소녀가 부재하는 시점에서 서술하는 것이므로 이 연구범위에 속한다고 보고 관찰대상으로 지정하였다.

120) “글세 말이지. 이번 앤 꽤 여러 날 앓는 걸 약도 변변히 못 써봤다더군. 지금 갈아선 윤 초시네도 대가 끊긴 셈이지.....그런데 참, 이번 계집엔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글세,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니 않아?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 달라고.....”

「소나기」, 제7차 중학교 국어교과서 1-2, 교육인적자원부, 2002, p.62.

121) 다른 것은 도무지 무서워할 줄 모르면서도 유독 비행기만은 병적으로 겁을 내는 서울 아이한테 얼핏 생각이 미쳐, 눈길을 하늘에서 허리가 동강이 난 다리로 끌어내렸을 때, 내가 본 것은 강심을 겨냥하고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가는 한 송이 쥐바라송꽃이었다.

「기억 속의 들꽃」, 제7차 중학교 국어교과서 2-1, 교육인적자원부, 2002, p.164.

122) 미나리밭 옆에 사는 무당네 딸 득이는, 어느 해 봄, 배꽃이 눈보라처럼 지던 날, 이대 룡을 따라 먼 마을로 살림을 떠났다.

「미리내」, 제7차 중학교 국어교과서 1-2, 교육인적자원부, 2002, p.89.

123) 제7차 중학교 국어교과서 3학년 2학기 1단원 창조적인 문학체험의 보충 심화 부분에 실린 박상률의 「봄바람」의 일부인 <생일선물>의 끝은 은주의 집을 방문한 내가 서울 아이의 집에 가고 없는 은주의 빈 집을 뒤로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결말이 난다. 물론 <생일선물>이 「봄바람」의 일부인 것과 이 헤어짐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헤어짐은 주인공이 ‘나는 비로소 외로움이라는 말의 의미를 몸으로 느껴야 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충격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수필을 주인공의 헤어짐에 초점을 맞추어 이 분류에 넣어 살펴보기로 한다.

124) 졸업식을 며칠 앞두고 난 갑자기 고향을 떠나게 되었다.....(중략).....그런데 험레벌떡 뛰어오는 소녀가 있었다. 은하였다. 어디 가느냐고 물었다. 배웅을 하러 나왔다는 것이다.....(중략).....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은하는 나의 가슴 깊이 꿈과 별을 심어 놓았다. 계집에 하면 고 귀여운 별을 생각하고 그 별과 비교하게 되었다.

「미리내」, 앞의 책, p.93.

서술시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섯 작품 모두 서술이 실제적으로 소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¹²⁵⁾ 객관적으로 보이는 듯한 서술시점에도 늘 소년의 시선이 내재화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소나기」를 보면 두 주인공의 묘사에 있어서 소녀가 소년을 바라보는 시각보다 소년이 소녀를 바라보는 시각에서의 서술이 더 지배적으로 등장한다.

이 날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고 있었다.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 올린 팔과 목덜미가 마냥 희었다.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려고 하는 듯하나 실제로는 그러한 객관성에는 관음증처럼 소녀를 바라보는 소년, 즉 남성 화자의 시선이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소녀의 외양묘사 중 소녀를 ‘꽃’에 비유하는 대목에서 더욱 더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소녀가 갈꽃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천천한 걸음이었다. 유난히 맑은 가을 햇살이 소녀의 갈꽃머리에서 반짝거렸다. 소녀 아닌 갈꽃이 들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았다

「요람기」에서 소년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듯으로 보이는 무당네 딸 ‘득이’ 또한 소년의 시선 중심에서 묘사된다.

득이는 더 마음씨 좋고 인물도 고왔다. 언젠가 득이네 집 뒤 울타리에서 찢레순을 꺾다가 가시에 찢려 온 적이 있었다. 그때 득이는, 소년의 피나는 손가락을 제 입으로 빨고 빨고 하다가 속잎을 뜯어 붙이고, 저고리 안 설에서 실을 뽑아 치매 주었다. 실을 뽑는 득이 양가슴이 눈물 속으로 뽀얗게 어렸었다. 소년이 눈을 깜짝여 귀 눈물을 짜 버리자,

125) 외양적으로 드러나는 서술관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제적인 서술관점이다.

득이는 얼굴을 붉히고 옆으로 몸을 돌려 버렸다.

실을 뽑는 득이의 양가슴이 보이는 장면의 묘사 부분을 보면 소년의 입장에서 마치 카메라가 득이의 양가슴이 보이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보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 눈물 때문에 시야가 뻥얇게 보인다는 구절을 읽는 순간 독자는 이미 소년의 시선을 수용하게 된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소년의 시선을 쫓아서 작품의 세상을 보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시각의 성격이 잘 드러나지 않고 객관성을 가장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독자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남성화된 시각을 거친 것이라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데 있다.

「기억 속의 들꽃」에서는 소년이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명선이와 6·25 전쟁의 풍경을 그리고 있다. 명선이는 결말에서 죽음으로 부재하게 된다. 그토록 강인했던 명선이는 ‘강심을 겨냥하고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가는 한 송이 쥐바라송꽃’이 되어 사라지게 되는데 이렇게 명선이는 제목처럼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게 되는, 그 존재가 남성인 타인의 입을 빌려서만 가능하게 되는 한 송이 ‘들꽃’이 되어버리게 된다.¹²⁶⁾

박상률의 「봄바람」의 일부분인 <생일선물>은 사춘기의 한 소년이 사랑과 외로움을 동시에 배워 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은주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년이 은주의 집을 방문하였지만 이미 서울 아이의 초대를 받아 집을 떠난 은주의 빈자리를 확인하게 된다. 이렇게 <생일선물>은 소년이 ‘나는 외로움이라는 말의 의미를 몸으로 느껴야 했다’고 고백할 정도로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며 은주의 집을 돌아서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 소설은 소년의 눈에서 두 소녀 ‘은주’와 ‘서울 아이’를

126) 「기억 속의 들꽃」의 명선이는 실제적으로 나의 기억 속에 남아서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될 소중한 존재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죽어서도 소년에게 잠재적으로 영향을 끼칠 명선의 존재보다는 우선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재의 형태, 죽음에 초점을 맞추었다.

바라보고 있으며 일시적인 부재이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은주의 부재를 확인하고 돌아서는 것으로 결말이 난다는 점에서 이 단원의 연구 분류에 속한다고 보았다.

학생들에게 가장 공감형성대가 잘 되는, 유년기의 사랑을 다룬 문학 작품들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남성시각으로 서술되고 그것도 결말이 거의 여성의 부재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구성상 다소 편중되었다는 느낌을 준다.

물론 비록 남성의 시선으로 묘사되지만 남성보다 더 적극적인 성격의 여성 주인공 명선이 등장하는 「기억 속의 들꽃」 같은 경우에는 명선이 죽음으로 부재하게 되지만 역설적으로 화자의 기억 속에 계속 남아 화자의 성장을 도와주게 된다.¹²⁷⁾ 또한 「동백꽃」은 이러한 분류에서 아예 제외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교과서에 수록된, 유년기의 사랑을 다룬 문학 작품들의 상당수가 이러한 구조와 시선 처리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들은 좋은 문학작품이란 무엇인가 하는 기준을 정할 때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을 떠올리게 되고 그러한 작품들을 좋은 문학작품의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이 학생들이 성장하여 어른이 된 후에도 좋은 문학작품을 고르는 기준과 전범이 된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현재의 교과서는 다양한 시각과 구성을 가진 작품들을 확보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교과서가 가지는 영향력을 미루어 볼 때 학생들이 이렇게 남성화된 시선으로 작품 속 인물들을 대하게 되는 것을 반복하게 된다면 자신도 모르게 남성의 시선을 내재화 하게 될 수 있다. 때문에 교과서의 편찬과정에서는 학습목표의 성취에 적합한 다수의 작품들 중에 가능한 다양한

127) 하지만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기억 속의 들꽃」의 형식상 드러나는 구조, 여성의 부재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분류 안에 구분하였다.

시선을 확보할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해서 이러한 편중 양상을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서가 편집되었다면 실제 수업 시간에 그러한 인식 정도는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담당 교사의 배려가 필요하다.

2) 남성의 역사 -민족 수난과 극복을 다룬 작품

역동적인 근·현대사는 민족에게는 비극이었지만 한국 문학에 있어서는 가장 풍부한 소재를 제공했다. 식민지 시대와 전쟁, 분단을 체험한 세대들은 자신들의 실존을 위협했던 사건들을 문학에 반영하였고 교과서에도 역시 그러한 민족의 아픔을 다룬 작품들이 수용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민족의 시대적 비극을 다룬 작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그것은 그러한 작품들 속에서 여성이 부차적인 인물로 등장하거나¹²⁸⁾ 죽음으로 부재하거나 ¹²⁹⁾ 부차적인 인물이면서도 남성이테 올로기에 빠져 있는¹³⁰⁾ 모습을 보이는 등 여성 주인공들이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항상 중심에 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숨쉬는 영정」에서는 6·25피난 때 헤어졌던 형제 태규와 재규, 그리고 태규의 가족이 주요인물로 등장한다. 그러나 이산가족상봉을 얼마 안 앞두고 태규는 유언으로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죽게 되고 상봉 당일 날에 재규는 형 대신 형의 영정을 들고 온 조카 기현과 함께 오열을 터뜨린다.

영정이 번히 떠 보였다. 망연히 바라봤다. 주먹코며 이마며 얼굴 모습이 태규 형님이 틀림없다.

“오늘 정오에 가셨습니다. 제 손을 잡으시고 ‘재규야.’라고 부르면서

128) 「흰 종이수염」의 어머니

129) 「기억 속의 들꽃」의 명선

130) 「숨쉬는 영정」의 어머니

운명하셨습니다.” ……(중략)……

“태규 형님! 재규예요, 재규…… 말 좀 해 봐요, 재규를 불러 봐요, 네? 형님!”

“작은 아버지!”

망연히 서 있던 기현이도 영정을 안고 텅구는 재규를 부여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중략)…… 재규와 기현이 영정을 부여잡고 울부짖는 소리가 실내를 메아리쳐 창 너머로 번져 갔다.

「숨쉬는 영정」에서 태규의 죽음으로 상실감을 가장 비통하게 드러내는 인물은 태규의 아들 기현과 태규의 남동생이다. 이것을 단순히 아버지의 죽음을, 형님의 죽음을 남은 아들과 동생이 수용하고 슬퍼하는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인한 좌절감의 의미를 거시적으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태규의 죽음으로 인한 이산가족상봉의 실패와 당사자들의 좌절감은 단순히 한 가족의 개인사적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족상봉의 좌절과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처럼 분단의 아픔이라는 민족사적 비극을 이야기하는 작품에서 상실의 슬픔의 주체가 남성만으로 국한되는 것은 마치 이러한 거대담론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은 남성뿐이라는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흰 종이수염」에서도 중심인물로는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한다. 전쟁으로 한 쪽 팔을 잃은 아버지가 상실감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주요 갈등의 당사자는 아버지와 아들이다. 어머니는 부차적인 인물로 등장하는데 이 때 어머니의 묘사는 주로 부엌¹³¹⁾이나 밥상¹³²⁾에서 이루어지며

131) 어머니는 부엌문 앞에서 무엇을 북북 치대고 있었다. 인기척에 후딱 뒤를 돌아본 어머니는 마루에 누워 있는 사람을 눈으로 가리켰다. 어머니의 두 눈에는 슬픈 빛이 서려 있었다.

제7차 중학교 국어교과서 1-2, 교육인적자원부, 2002, p.196.

132) 어머니는 또 한 번 한숨을 쉬면서 함지박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밀가루 수제비를 뜨는 것이었다. ……(중략)…… 수제비를 떠서 두 그릇 상에 받쳐 들고 어머니가 부엌을 나오자, 동길이는 앞질러 마루로 올라갔다.

제7차 중학교 국어교과서 1-2, 교육인적자원부, 2002, p.198.

그 때의 어머니는 ‘두 눈에는 슬픈 빛이 서려 있거나’, ‘휴우’ 한숨을 쉴 따름이거나 ‘두 눈에는 눈물이 흥건히 괴어서 말없이 돌아보곤’ 한다.

그리고 어머니가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이 때 어머니의 인상은 다소 조심성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어머니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을 때는 한 다발의 흰 종이수염이 제법 그럴듯하게 만들어졌다. 어머니는 밥상을 놓으며,
“그걸로 대체 뭐 하는게? 광대놀음하는게?” 했다.
“광대놀음? 흐흐흐……” 아버지는 서글피 웃었다.

이처럼 민족의 고난과 그 극복 문제를 다루고 있는 소설에서 주요 인물이 남성이라는 것은 자칫하면 민족의 수난과정에서 ‘남성’만이 고통의 주요 수용자가 되었다는 인상을 주며 우리 민족 전체가 노력하여 극복하려고 했던 시도들을 남성의 것만으로 한정시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민족의 수난과 극복이라는 제재를 다룬 문학작품 중에 여성인물이 주요인물로 등장하는 것은 「기억 속의 들꽃」과 「상록수」가 있다.

「기억 속의 들꽃」에서는 명선은 주요 인물로 온 몸으로 세월의 잔혹함을 이겨낸다. 명선이 가지고 있는 금가락지는 명선에게는 자신을 지켜주는 무기 역할도 하면서 자신이 위협당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명선이 금가락지 때문에 위협에 처하게 될 때 이중적인 위협을 당하게 된다. 첫 번째는 목숨이 위협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적으로 위협에 처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인 위협의 위기에 처하게 된 명선은 직감적으로 스스로의 육체가 위협의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남성처럼 행동함으로써 스스로를

지켜낸다. 전쟁이 아군과 적군으로 나누어질 때 적군에게도 아군에게도 위협을 느끼는 명선은 어찌 보면 가장 약자의 입장에 서 있는 자들을 대변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에 명선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공포와 운명의 힘에 의해 죽게 된다. 그래서 결국 전쟁 속에서 살아남은 남성 화자의 입을 통해 회상의 방식으로만 현존하게 된다.¹³³⁾

「상록수」에서 영신은 주체적인 인물로 등장한다. ‘청년들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 인물’로 그려지는 영신은¹³⁴⁾ 일제의 방해로 한글강습의 인원을 130에서 80명으로 줄여야 되는 상황에 직면한다.

……아이들은 울며불며, 영신의 몸에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죽기로 기를 쓰고 떨어지지 않는다……(중략)……사내아이, 계집아이 할 것 없이, 어머니의 젖을 억지로 뎀 것처럼, 눈이 빨개지도록 훌쩍훌쩍 울면서, 또는 흑흑 흐느끼면서 쫓겨 나갔다.

아이들의 등 뒤에서 이 정경을 바라보던 영신의 얼굴에 어리었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다른 작품에서는 남성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 목소리를 제

133) 「숨쉬는 영정」에서 태규는 죽지만 영정으로 남아 그의 아들이 영정을 들고 감으로써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형제와 간접 상봉의 매개체로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명선은 죽어서 시체도 발견되지 않을뿐더러 명선이가 간직하고자 했던 금가락지 또한 소년이 발견함과 동시에 강물에 빠지게 된다. 어찌면 늘 명선의 그림자에 가려서 모든 경기에서 명선에게 지곤 했던 소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명선을 극복해야 하는데 이렇게 명선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강화시키는 계기는 역설적으로 명선의 죽음이다. 명선이 살아있을 때에는 늘 명선에게 놀림을 받았던 소년은 명선이 죽은 후에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 또한 명선을 그리워하면서 명선을 추억하는 한 방법으로 다리 건너는 것을 용기내어 시도하게 된다. 다리 건너기에 성공하게 된 순간 소년은 명선의 금가락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잔존하던 명선의 마지막 유품-명선을 상기시킬 만한 유일한 것-을 없애게 된다. 명선에 관련된 모든 것이 없어진 후에야 소년은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성장을 위한 한 단계를 건너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극복의 대상이었던 명선이 죽음으로써 소년은 극복의 대상의 성장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134) “암말도 말고, 나 하라는 대로만 장내를 잘 정돈해 줘요. 자세한 애긴 이따가 할게.” 청년들은 영신을 절대로 신임하는 터라,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침통한 표정을 지을 뿐이다.

「상록수」, 제7차 중학교 국어교과서 2-2, 교육인적자원부, 2002, p.21.

대로 내는 여자 주인공이 드문 상황에서 영신은 ‘청년들의 절대적 신임과 더불어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의 강한 지지와 믿음’을 받고 있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러한 절대적 지도자가 온갖 역경을 이기고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가장 극단적이면서도 자명하게 이 상황의 아픔의 수준을 정의하는 부분이 바로 영신이 울음을 터뜨리는 대목이 아닌가 싶다.

그 전까지는 아이들이 울고, 청년들이 아이들을 끌어내리고,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울음을 터뜨릴 때에도 상황은 정리되지 않는 듯 보였다. 하지만 영신이 ‘아이들에게 그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소매로 얼굴을 가리며 돌아서자’ 상황은 정리가 된다. 그것은 갈등이 최고조로 도달한 후에 이르는 침묵과도 같은 정적의 시간이다.

한참이나 진정을 하고 나서는, 저희들 간에도 동무들을 내쫓고 공부를 하게 된 것이 미안쩍은 듯이 머리를 떨어뜨리고 앉은 나머지 여든 명을 정돈시켜 놓고, 차마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칠판 앞으로 갔다. 그는 새로운 과정을 가르칠 경황이 없어서,

“오늘은 우리 복습이나 하지.”

하고, 교과서로 쓰는 ‘농민 독본’을 펴 들었다.

영신이 울고 난 뒤에야 쫓겨나서 울던 아이들에게서 시선이 전환되어서 남아서 공부할 수 있게 된 아이들로 서술의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것은 영신이 가지는 존재감의 무게를 증명해주기도 하며 또한 영신이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슬픔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무너질 수 없는 자가 울었다. 영신은 흔히 무너지기 쉬운, 눈물이 많은 것으로 묘사되는 여성이지만 늘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랬던 인물이었기에 영신이 울어버렸을 때에는 그 고통의 수준이 극대화되며 민족이 겪었던 아픔이 절대적으로 느껴진다. 우는 것이

꼭 지는 것을 의미하거나 패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교과서 수록 부분에서도 영신이 울었다고 하여 일제의 탄압에 항거를 멈춘다거나 일제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워낙 큰 고통의 순간이기 때문에 영신이 울었다고 하여 영신이 약해 보이거나 기존에 보이던 권위의 흔들림이 예상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으리라 예상했고, 실제로도 강인했던 지도자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을 때 독자는 더욱더 그 고통에 쉽게 동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부분을 수록하는 것이 애국심 고취 차원에서 더욱 효과적이고 일제의 탄압을 독자들이 가장 극명하게 느끼게 할 수 있을 거라는 편찬자들의 무의식적인 판단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¹³⁵⁾

3) 남성이데올로기에 억압 받는 남성

교육이란 무지의 상태에서 앎의 상태로 이끈다는 점에서 자유를 지향한다. 물론 사회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르쳐서 학생들이 그것을 받아들여 함으로써 사회화를 시킨다는 관점에서 보면 교육은 자유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유란 또한 구속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구속 또한 자유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한 점에서 교육이란 사회유지를 위해서도 필수적이지만 학생에게 인간성찰의 기회를 제

135) 「상록수」에서 여성 주인공이 주체적임에도 불구하고 수록 부분에 관련하여 오히려 영신이 가지고 있는 ‘여성’이라는 성이 애국심 고취 차원에서 더욱 효과적이었다는 의견의 근거를 보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차혜영의 견해를 인용하겠다.

차혜영은 심훈의 상록수가 교과서 소설로서 가장 장수를 누리고 있는 민족주의적 정서를 대표하는 소설이라고 소개하고, 타민족의 지배에 직면한 민족의 언어적 동질성에 기초한 심정적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교과서에 발췌되어 게재된 ‘한글 수업을 하는 장면’을 인용하며 심훈의 상록수의 장기적인 게재는 교육과정의 변천 속에서도 변치 않는, 즉 한국의 ‘국어’ 과목을 존립시키는 언어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차혜영, 「한국 현대소설의 정진화 과정 연구」, 강진호 외, 『국어 교과서와 국가 이데올로기』, 글누림, 2007, p.288.

공한다는 점에서도 유용하다. 분명 사회는 평등하지 않다. 어느 측면으로든 힘 있는 자와 그 보다 덜 힘 있는 자로 층위가 갈라진다. 지금 이 논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는 양성 평등적이지 않다. 사회는 아직까지 남성 중심적이며 교과서의 편제 또한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러한 경향은 남성에게 유리하고 여성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 남성 역시 그 체제를 받아들이기 위해 감수해야 할 것들이 생긴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체제 밖의 남성과 여성은 더 큰 불이익을 받는다. 흔히 남성 중심적인 성격의 사회에서는 남성은 늘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 틀의 모순을 감추기 위해서 그 틀 밖의 남성들의 신음소리는 감추어진다. 그래서 이 번 장에서는 그러한 틀이 남성에게도 역시 유리하거나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고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 또한 감수해야 할 몫이 크다는 것을 드러내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 사회에서 남성성에 대한 지배적인 표상이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페미니즘 논의 속에서 남성 연구를 시작한 법률학자인 마리안네 그라브루커 (Marianne Grabrucker) 는 “전형적인 소녀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것보다는 권력지향적인 남성성이 연마되어야 하는 것이 더 핵심적인 문제다. 라고 말했다. 136)

미하엘 카우프만 (Michael Kaufmann) 는 남성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36) 이런 부류의 연구자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남성을 연구하고 다양한 남성성의 가능성과 그 조건들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동감하면서 주로 소년/소녀들의 행동을 연구했다. 즉 소년들이 학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남성적인 우월감과 권력 환상을 배우고 표현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소녀들이 방어와 거절과 무시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마리안네 그라브루커, 『전형적인 여자』,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1989, p.248. 조이한, 앞의 책, p.219 에서 재인용.

“남성성은 권력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성은 매우 깨지기 쉬운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쨌든 남성성이 사람들 안에 내재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생물학적 실재라고 사람들이 믿기를 바라는 의미처럼 내재하는 것은 아니다. 남성성은 이데올로기로서 존재하는데, 즉 그것은 행동 대본으로서 존재하며 ‘성별로 구분된 것’들 안에서 존재한다.” 137)

남성성이라고 정의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여성성을 정의하는 기준을 의식하여 만들어진다. 흔히 사회에서 말하여지는 남성성과 여성성은 명확히 구분되어진다고 보다는 서로 상대의 성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된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이다.¹³⁸⁾ 그래서 때로는 남성성을 획득한다는 것이 다른 남성보다 힘에서 우위를 점한다거나¹³⁹⁾ 남성성으로 정의된 기질에 관해서는 여성보다 그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는 위에 제시된 미하엘 카우프만(Michael Kaufmann)의 인용문에서 흔히 남성에게 생득적으로 내재된 것이라 여겨졌던 ‘남성성’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데올로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역으로 ‘여성성’ 또한 하나의 만들어진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데올로기는 사회 체제의 유지를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고 교육의

137) 카우프만, 미하엘. 『비판적 남성 연구. 양성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연구 단초들』, 함부르크, 1996, p.153. 조이한, 위의 책, p.230에서 재인용.

138) 조지 L.모스 George Mosse의 저서 『남자의 이미지 The Image of man』에 의하면, 어떤 남자가 가장 남자답고 도덕적, 육체적으로 아름다운가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그 반대의 모습과 대비시키는 것이다. 이를 ‘대립 유형’이라고 한다. ‘남자답지 못한 유형’이라는 대립된 유형 비교를 통해 근대 남성성은 더 정교하게 정의되었다. 대립된 유형 비교의 대상으로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여자다. 남성의 정반대인 여성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남성성의 정체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정상적이지 못한 남성성의 유형들을 특징짓는다. 여기엔 유대인, 범죄자, 집시, 정신병자, 동성애자, 부랑자 등이 속한다.
조이한, 위의 책, p.114.

139) 여기에서의 힘은 반드시 신체적인 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과정을 거쳐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화에 이용된다. 남성성이라는 이데올로기 또한 후천적으로 학습된, 만들어진 사회와의 기제이다. 사회화에 필수적이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그러한 기질이 반드시 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성은 매우 높이 평가되고 대다수의 남자들은 그 남성성에 도달하길 원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자로서 태어난다는 것은 여성에 비해 더 많은 권력과 노동을 보장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무척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남성성은 동시에 자기 내면에 있는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을 억누르고 타인에 대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것이기에 긴장을 유발한다.¹⁴⁰⁾ 그리고 남성들은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남성성과 그 기준점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자신의 위치의 간극에서 갈등하고 압박감을 느끼기도 한다.

교과서에서도 그러한 종류의 압박감을 느끼는 인물들이 묘사된다. 이것은 연령을 떠나서 모든 남자에게 발견되나 그 정도가 다를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성인의 남성보다 유년기의 청소년, 남자 청소년에게서 더 많이 발견된다. 이는 아마도 사회화의 과정에서 아직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완전하게 습득하지 못한 소년들이 더 갈등을 많이 겪게 되고 그래서 표면적으로 표출되는 압박감의 정도가 어른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갈등 정도가 클수록 인위적인 이데올로기의 습득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인위성의 강도가 세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문학 작품인 만큼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쉽게 공감할 층위나 연령의 인물들이 주인공으로 내세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압박 아래 놓여 있는 성인 남성의 경우는 이미 그러한 갈

140) 조이한, 위의 책, p.231.

등을 겪고 사회화의 과정을 끝냈기 때문에 그 이데올로기의 정당성이나 당위성, 문제점들을 고민하고 반성하며 받아들이는 갈등의 과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미 그러한 틀에 익숙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그러한 틀에 맞추어져 제대로 사회화되지 못한 자신을 비판하거나 여성을 비하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여성이데올로기가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까지도 억압적인 기제로 작용했다는 것을 전제로 교과서 속에서 남성성에 대한 압박을 느끼는 남성등장인물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육체미 소동」에는 딱 벌어진 가슴을 가진 ‘기철’이 부러워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동민’이 등장한다. 동민이는 급기야 여자 속옷을 착용해 우람한 체격을 가지게 된 것처럼 행동하게 되지만 결국 신체검사 하는 날 선생님께 들켜 망신을 당한다.

이 「육체미 소동」에는 청소년들이 선망하는 남성미¹⁴¹⁾와 그러한 남성미를 가지지 못한 주인공이 느끼는 압박감과 좌절감이 잘 표현되어 있다.

기철, 옷통 벗고 뛰고 있다. 동민과 덕수, 기철의 몸을 바라보며 간다.……(중략)……둘, 기철을 찌러보며 간다. 별수 없이 부러워하면서……

‘이두박근 삼두박근’을 남성미의 표상으로 생각하는 동민이 느끼는 이러한 몸매에 대한 선망과 압박은 동민이 친구와 주고받는 다음의 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화 속에서 남성의 이상적인 육체는 근육으로 뒤덮여서 ‘주삿바늘’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것으로 과장되어 표현되어 있고 그 육체미의 요건에는 필수적으로 ‘강인함’이 수반된

141) 이는 현실세계에서 통용되는 아름다운 남성의 육체미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다. 외모지상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외모 중심으로 사는 것에 대한 가벼운 풍자를 통해 내면의 미를 쌓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우려는 이 작품은 현재 청소년들이 노출되어 있는 남성미-외모 지상주의적 성격과 더불어 남성성의 주요 요건으로 여겨지는 강인함, 힘이 혼재된 양상-와 그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느끼는 압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덕수: 미스터 아메리카 출신이라는 거 아니냐.

동민: 힘도 진짜 세겠지?

덕수: 당연하지. 온몸이 완전히 다 근육인데. 있지, 근육이 하도 단단해서 주삿바늘도 잘 안 들어가고, 모기한테 물릴 때 힘을 뺏 주면 모기 침이 그대로 그냥 딱 박혀서 모기가 꼼짝달싹 못 한다잖아?

동민: 우와……

덕수: (새삼 자기 몸을 훑어보며) 예구, 우린 같은 남자로서 이 꼴이 뭐냐? 으, 비참하다, 진짜.

동민: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병어리 삼룡이」에서 주인 아들¹⁴²⁾은 폭력적인 성향을 지닌 인물로 병어리 삼룡이와 신부를 구박하고 폭력을 가한다. 주인 아들이 병어리 삼룡이에게 가하는 폭력을 상위계층이 하위계층에게 하는 폭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¹⁴³⁾ 신부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신부에 대한 열등감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신랑이 신부보다 못하다는 주의의 평판은 흔히 남성이 여성보다 돋보여야 한다는 기존의 사회적 인식과 배

142) 이 경우는 이데올로기와 스스로의 열등감에 억압받는 인물이면서도 남을 억압하는 인물이다.

143) 미하엘 카우프만은 남성의 폭력을 여성에 대한 폭력, 남성 사이의 폭력, 그리고 남성 자신이 자기에게 행하는 폭력으로 나누고 그것에 대한 원인도 각각 다르게 분석한다.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행하는 폭력에 관해서는 역사 이래 남성들 사회에서 폭력은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심지어 어떤 경우엔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힘겨루기에서 지는 것, 즉 약하고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남성성의 상실로 연결되며, 불안을 유발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카우프만, 미하엘, 앞의 책, p.162. 조이한, 위의 책, p.72에서 재인용.

치되는 것이어서 신랑에게 열등감과 압박감을 느끼게 했을 것이다. 이것은 신랑이 신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동기로 작용하게 된다.

신부가 오자 신랑의 흠절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신부에게다 대면 두루미와 까마귀지.”

“아직도 철딱서니가 없어.”

“색시에게 쥐여지내겠지.”

“신랑에겐 과하지.”

이럴 적마다 신랑은 그 말하는 이들이 미웠다. 일부러 자기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후에 그들을 만나면 말도 안 하고 인사도 하지 아니하였다.

또, 그의 고모 되는 이가 와서 자기 조카를 보고,

“인제는 어른이야. 너도 그만하면 철이 들 때가 되지 않았니? 네 처한테 부끄럽지 아니하냐?”

하고 타이를 적마다 그의 마음은 고모에게 부끄럽다는 것보다도 자기를 이렇게 만든 자기 아내가 더욱 미웠다.

“여편네가 다 무엇이냐? 저 빌어먹을 년이 들어오더니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굴지.”

「소나기」에서는 부끄러움이 많은 소년이 등장한다. 소년은 자신과의 만남에 있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소녀에 비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신에 대해 스스로를 ‘바보’라고 인식할 만큼 열등감과 조바심을 느낀다. 이 ‘바보’라는 말은 소녀가 첫 만남에서 소년에게 던진 말이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소년은 스스로를 규정하는 단어로 ‘바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한다.

‘숨어서 내가 하는 일을 엿보고 있었구나.’ 소년은 달리기 시작했다. 디딤돌을 헛디뎠다. 한 발이 물 속에 빠졌다. 더 달렸다.……(중략)……소년은 한 손으로 코피를 훔쳐 내면서 그냥 달렸다. 어디선가 ‘바보, 바보.’ 하는 소리가 자꾸만 뒤따라오는 것 같았다.

소녀의 눈이 금세 ‘바보, 바보.’ 할 것만 같았다.

그러다,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소녀더러 병이 좀 낫거들랑 이사 가기 전에 한 번 개울가로 나와 달라는 말을 못 해둔 것이었다. 바보 같은 것, 바보 같은 것.

소극적이거나 내성적인 성격이 반드시 열등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압박감에 시달리는 것은 아마도 소년이 남성은 어떠해야 한다는 선입관, 기존의 남성성에 대한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소년이 소녀가 무가 맵고 지리다고 하자 자신이 권했던 무를 “맛없어 못 먹겠다.”며 더 멀리 팽개쳐 버리는 장면이 있다. 이 구절을 두고 최시한¹⁴⁴⁾은 ‘소년이 기질, 태생, 신분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열등감과 수줍음 때문에 소녀와 가까워지고 싶으나 그렇게 하기 어려워서 내적으로 갈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기도 한다.

초기에 소녀에게 감정표현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주도권을 가지지 못한 소년¹⁴⁵⁾은 소녀가 익숙하지 못하는 행동에 있어 자신이 주도권을 잡게 되자 우쭐하며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소년이 송아지를 타면서 ‘소녀가 흉내 내지 못할, 자기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어서 자랑스러워 할 정도로 소녀에게 있어서 돋보이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서 확인되는 열등감의 요인 중 하나가 소년이 가지고 있는 남성성에 대한 압박감이 아니었나 하고 추정해본다.

144) 최시한, 『소설의 해석과 교육』, 문학과 지성사, 2005, p.27.

145) 소녀에게 첫 마디로 “이 바보.”란 말을 들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 소녀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을 깨닫고는 디딤돌을 헛디딘 점, 소녀가 무가 맵고 지리다고 하자 자신이 권했던 무를 “맛없어 못 먹겠다.”며 더 멀리 팽개쳐 버린 점 등에서 자기표현의 소극성이 드러난다.

소년이 고삐를 바투 잡아 쥐고 등을 긁어 주는 체 훌쩍 올라탔다. 송아지가 경충거리며 돌아간다……(중략)……어지럽다. 그러나 내리지 않으리라, 자랑스러웠다. 이것만은 소녀가 흉내 내지 못할, 자기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소년의 이러한 심리적 과정을 최시한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¹⁴⁶⁾

소년은 소녀와 친구가 되기는 했지만 심리적으로 소극성을 아주 떨치지지는 못하다가, 소녀를 위해주는 적극적·능동적인 행동과 소녀와의 신체적 접촉, 자기 과시 행동 등을 통해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심리적 자신감·교제 상대로서의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과 긍정을 얻게 된다.

소년이 소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은 열등감으로만 설명될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특수한 감정에서 오는 부끄러움과 혼재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 소년은 소녀와의 잦은 만남과 헤어짐을 겪으면서 자신의 소극적인 면을 극복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소녀와의 사랑을 통해 성장해가는 소년의 모습을 다룬 「소나기」에서는 소년의 자기 극복의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소년이 가지고 있는 남성성에 대한 압박과 열등감, 소녀에 대한 애정이 미묘하게 섞여서 자연스럽게 드러나 있다.

「기억 속의 들꽃」에서는 늘 내기에서 소년을 이기는 소녀, 명선이 등장한다.

수줍 낱개에 노랗게 호박꽃가루를 칠해서 암놈으로 위장하여 왕잠자리를 우리보다 숨씨 있게 낚는가 하면……(중략)……그 애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위험천만한 곡예를 부서진 다리 위에서 예사로 벌여 온

146) 최시한, 앞의 책, p.132.

리의 입을 딱 벌여지게 만드는 것이었다.……(중략)……엷히고 설킨 철근의 거미줄이 간땡간땡 허공을 가로지르고 있는 마지막 그 곳까지 기어가는 내기였다. 그리고 내기에서 승리자는 언제나 명선이였다…(중략)…그렇게 킬킬거리며 우리들 머슴애의 용기 없음을 놀릴 때 그 애의 몸뚱이는 마치 널을 뛰듯이 위아래로 훌쩍훌쩍 까불리면서 구부러진 철근의 탄력에 한바탕씩 놀아나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명선이하고 단둘이서만 다리에 간 일이 있었다. 그 때도 그 애는 나한테 내기를 걸어 왔다. 나는 남자로서의 위신을 걸고 명선이의 비아냥거림 앞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봤으나, 결국 강바닥에 깔린 뽕나무밭이 갑자기 거대한 팽이가 되어 어쩔어쩔 맴도는 걸 보고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명선이한테 겁쟁이라고 꼼짝없이 수모를 당할 차례였다.

명선에 대한 소년의 열등감의 잔상은 명선이 죽은 후에도 남아서 소년이 끝없이 만경강 다리의 철골근처까지 건너가는 것을 시도하게 만든다. 자신을 ‘겁쟁이’라 비웃었던 명선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명선이가 죽은 그 끔찍한 장소에서 모험을 시도한 소년은 성공하게 되고 ‘이젠 어느 누구도, 제아무리 쥐바라송꽃일지라도 나를 비웃을 수는 없게 되었다.’고 고백하며 열등감을 극복하게 된다.

명선이가 들쭉이 되어 사라진 후, 어느 날 한적한 오후에 나는 그 때까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모험을 혼자서 시도해 보았다. 겁쟁이라고 비웃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의외로 용기가 나고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이었다.

소년의 시도는 소녀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이기도 할 것이며 상처받은 자존심의 회복을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소년의 이러한 행동에서 남성이 가져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용기와 담대함에 대한 압력이 어린 소년에게도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V. 결론

지금까지 제7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 속에서 작품의 수록 양상과 여성인물들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과서에 수록된 대부분의 작품이 남성작가에 의해 쓰였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여성들이 쓴 글이라면 모두 관점이나 가치 면에서 필연적으로나 본질적으로 ‘여성적’일 것이라고 가정할 수 없다는 팸 모리스¹⁴⁷⁾의 지적처럼 단순한 작가의 성비와 관련한 통계적 수치만을 가지고 교과서가 양성평등관점의 반영에 실패했다고 비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교과서의 단원 편성과 구성과 같은 양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에서 뿐 아니라 내용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도 제7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는 양성평등관점을 불완전한 상태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등장인물을 중심인물과 주변인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성별 간에 불균형이 발견되었고, 등장인물의 출현 장소와 직업을 분석해보니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양산할 여지가 많이 발견되었다. 사회와 가정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 이외에 소설의 배경이 가정에 국한된 작품에도 성역할에 관한 편견이 개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가정 내에서의 부모의 성 역할 분담적 태도는 자녀세대에게 암묵적으로 내면화되는 사회화 과정의 핵심적 내용을 이룬다는 점에서¹⁴⁸⁾ 학생들이 성역할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교과서 수록 작품의 인물의 재현양상을 살펴보면 여성 인물을 온전하게 담아냈다가 보다는 남성의 시선을 투과한, 응시의 대상으로서의 여성이 많이 그려지고 있었으며 객관적으로 제시된 듯한 서술의 초점도

147) 팸 모리스, 『문학과 페미니즘』, 문예출판사, 1999, p.15

148) 김태현·이문숙, 『21세기에 만나는 여성의 삶』,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p.64.

실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진 작품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학습활동> 등의 발문에서 교과서 본문에서 드러나는 성적 편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재확인시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편찬과정과 수업현장에서 주의 되어야 할 부분이다.

교과서가 양성평등관점을 성공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이유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은 근본적으로 문단에서 이미 남성 작가 위주의 정전성립이 견고하게 이루어져 있고 여성 작가와 작품의 재평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괄목할 성과를 이룬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에 수록 할 작품을 고를 범주 내에서 이미 남성작가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는 유교적 전통주의가 뿌리 깊게 남아 사회 구성원들의 사고 속에 잔존해 있다는 것도 근본적인 원인이다. 팸 모리스에 의하면 “한 작품의 작가의 완벽한 의식적 통제 아래 쓰이는 경우는 드물다. 어떤 작품이든 그 속에는 작가가 말할 수도, 감히 말하지도 못했던 또는 심지어 그가 의식하지도 못했던 내용들이 숨어 있다.”¹⁴⁹⁾ 때문에 작가가 의식적으로 특정 성을 왜곡하려고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작가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작품에 녹아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교과서의 구성 및 집필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두고 조경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교과서 구성 및 집필상의 성차별은 의도적이라기보다 잠재적으로 나타난다. 여성경험을 반영하고 성불평등적 요소를 교정하기 위해 여성대표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지만, 교과서 분석, 편찬 과정, 편찬인의 의식구조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특히 남성 참여자들이 표면적으로 남녀 평등한 성역할 이념체계를 가졌으나, 의식 깊은 곳에 전통적 남존여비 사상과 성에 따른 역할 구분이 잠재되어 이중적 사고체계를 가지

149) 팸 모리스, 앞의 책, p.37.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사고가 교과서 집필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150)

두 번째는 위에서 언급한 상황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교과서에 수록할 작품이 양성평등 관점에 어긋났다고 하여 무조건 그 작품의 배제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어 교과서는 각 학년과 단원마다 교육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학습목표가 제시되어 있고 이 목표의 성취에 가장 적합한 작품이 교과서에 수록된다. 이 과정에서 수록된 어떤 작품이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벗어났다고 하여서 그 작품의 수록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을 예로 들어 보면 「운수 좋은 날」에는 여성 비하적인 표현이 많이 등장한다. 그러나 ‘학생들로 하여금 그 당시 사회적 배경과 문학적 경향을 통해 한국 문학에 대한 역사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대단원의 학습 목표를 상기해보면 「운수 좋은 날」은 식민지 당대의 하층민의 생활을 보여주는 데 효과적인 교재일 수 있다. 그의 거칠고 무식한 언행은 그러한 하층민의 특징을 잘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이며 문학이 현실의 반영임을 감안해 볼 때 그러한 인물의 제시는 오히려 그 시대의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문학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가나 등장인물의 양성평등적 관점의 결여를 일괄적으로 비판할 수만은 없다. 다만, 그러한 작품을 수록 할 때에는 <학습활동> 등과 같은 발문을 통해 그러한 등장인물의 치중된 사고의 문제점을 학생들이 인식하고 비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물론 지금까지 언급한 이유들이 현재의 편중된 교과서 수록 양상을 정당화 시켜줄 수는 없다. 문학수업은 문학적 측면으로만 접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이 인간

150) 조경원, 「젠더와 교육 : 무엇이 문제인가?」, 『여성연구논집』 제17집, 2006.4, p.44.

의 올바른 성장을 뜻한다고 할 때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교과서 편찬과 학습지도 과정에 있어서 양성평등적 관점의 수용은 중요하다.

교과서에 성 평형성을 고려한 바람직한 문학 작품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으로 첫째, 교과서 개발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더욱 늘리며 특히 교과서 개발자들의 양성 평등 관점 확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저작활동의 대부분이 남성에게 의해 독점되던 시대의 작품은 불가피하나 근·현대 작품의 경우 여성 저자들의 작품 세계에 대한 접근과 소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교과서의 문학 작품들을 전체적으로 모아 놓고 검토·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교과서에 수록될 작품들을 해당 학년이나 단원의 차원에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모아 놓고 어느 하나의 주제나 시점, 시대나 사회적 고정관념 등에 치우치지 않았나 철저히 검토하여 다양한 특성과 다양한 주제,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인물 등을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51)

마지막으로 양성 평등 수업이 효과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수업의 내용이 양성 평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업의 방법 또한 양성 평등해야 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양성 평등 의식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양성 평등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규 교과 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교사는 성차별적인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 둘째, 양성에게 동일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양성의 특성을 고려한 수업을 실시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이 동일한 수준의 성취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양성 평등 의식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규 교과 수업에서 양성 평등한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학생들의 양성 평등 의식을 길러줄 수 있는 별도의 시간과 프로그램을

151) 이덕주, 「중학교 국어교과서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성차별적 요소 분석: 소설·희곡의 여성 등장 인물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p.71-77.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¹⁵²⁾

제7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는 양성평등관점의 적극적인 수용을 꿈꾸는, 그러나 현실은 그 출발선 상에 서 있는 과도기의 교과서이다. 비록 보충학습의 차원이지만 양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작품을 독립적으로 수록하였고 여성 작가의 작품 수록을 늘리는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시각의 정립을 위해서는 더욱 더 적극적인 양성평등관점의 수용이 필요하다.

152) 김재춘·왕석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양성 평등 교육 실현 방안」, 『제7차 교육과정에서 양성 평등 교육 실현 방안 탐색』, 1999.9.17. pp.150-151.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제7차 중학교 국어교과서 1-1, 교육인적자원부, 2001.
중학교 국어교과서 1-2, 교육인적자원부, 2002.
중학교 국어교과서 2-1, 교육인적자원부, 2002.
중학교 국어교과서 2-2, 교육인적자원부, 2002.
중학교 국어교과서 3-1, 교육인적자원부, 2003.
중학교 국어교과서 3-2, 교육인적자원부, 2003.
- 제7차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1-1, 교육인적자원부, 2004.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1-2, 교육인적자원부, 2003.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2-1, 교육인적자원부, 2004.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2-2, 교육인적자원부, 2003.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3-1, 교육인적자원부, 2004.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3-2, 교육인적자원부, 2003.

2. 저서 및 논문

- 강진호, 『국어 교과서와 이데올로기』, 글누림, 2007.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연수자료 「양성평등 학교문화 선생님이 만듭니다」, 교육인적자원부, 1999.
-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론, 2007.
- 권성아, 「교과서와 아동의 성역할 사회화」, 『연구노트』 제8권 제4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1979.9.

- 김수업, 「교육과정(국어과)의 내용·영역에 대하여」, 『모국어교육』 제2호, 모국어교육학회, 1984.
- 김신일, 『교육사회학』, 교육과학사, 2007.
- 김이상, 「문학교육론소고」, 『어문학교육』 제13집, 한국어문학회, 1991.5.
- 김재춘·왕석순,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양성 평등 교육 실현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1999.9.17
- 김태현·이문숙, 『21세기에 만나는 여성의 삶』,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 김혜영, 「현대문학 정전 재검토」, 『한국현대소설사의 정전 재구성과 문학교육』, 한국현대소설학회·한국문학교육학회, 2007.11.10.
- 박영목 외, 『국어과 교수 학습론』, 교학사, 2001.
- 박홍선, 「소설교육의 목적과 지도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서신미, 「중학교 소설교재의 작중인물 연구: 여성주의적 비평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심혜원, 「제7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 소설 작품에 나타난 인물의 성역할 분석」,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오재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교육의 방향에 대한 토론」,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양성 평등 교육 실현 방안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9.9.17.
- 우한용,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 우한용 외 5인, 『소설 교육론』, 평민사, 1993.
- 윤혜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성차별 양상」,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이남호, 『교과서에 실린 문학작품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현대문학, 2001
- 이덕주,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성차별적 요소 분석: 소설·희곡의 여성 등장 인물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미향, 「중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성차별 연구: 현대소설 단원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정례,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 제6차 교육과정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장순심,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국어 교과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정구향, 「문학교육의 방안」, 『국어교육개발』 통권 34호, 1988.
- 정아정, 「현행 중학교 교과서 수록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인물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정현주,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 소설의 여성 인물 연구: 양성평등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조경원, 「양성 평등 실현을 위한 교육의 방향」,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양성 평등 교육 실현 방안 탐색』, 1999.9.17.
- 조경원, 「젠더와 교육 ; 무엇이 문제인가?」, 『여성연구논집』 제17집, 2006.4.
- 차혜영, 「한국 현대소설의 정전화 과정 연구」, 강진호 외, 『국어 교과서와 국어 이데올로기』, 글누림, 2007.
- 천정희, 「남성인물과 여성인물의 갈등 양상을 통한 양성평등 교수-학습

방안: 중학교 교과서의 소설 작품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최현섭 외, 『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2005.

허재영, 『국어과 교과서와 교재 지도 연구』, 한국문화사, 2006.

현종익·이학춘, 『교육학용어사전』, 동남기획, 2002.

ABSTRACT

**A study on the way the Korean textbooks
describe female characters.**

Lee, Ha Young
Dept. of Korean Literature
and Language Education
Graduated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essay analyzes how Korean Middle School 7th textbooks describe the woman characters from the point of view on the equality of sexes. Inspecting textbooks is important in that textbooks don't only reflect the reality but also reproduce the ideology belongs to the community. Especially, Korean textbooks contain a lot of literary works. The way the writers describe female/male characters and deal with the conflicts or the problems of the characters shows his/her point of view in terms of gender. Sometimes, it reveals the writer's gender bias or distorted standpoint. If the world in the works is distorted or lost the balance, it would have negative influences on the students.

Based on studying modern prose in Korean Middle School 7th textbooks, the male writers and the male characters outnumber

the female writers and characters. In addition, it turns out that many modern pose contains gender bias.

Female characters are passive and usually associated with something weak, beautiful and innocence. The female characters are described as the objects gazed by men. Their role is limited to responding to the events, because they are not capable of creating it. However, male characters are always centered and play a major part in the story.

To make matters worse, similar problems are discovered in a few footnotes. The reinterpretation in the questions offered by the textbooks seem to lose it's balance in the point of view of equality of sexes.

〈부록- 교과서 저자의 성별 분석표〉

〈1학년 교과서 본문〉

학기- 대단원- 소단원	제목	글쓴이	성별
1-1-1	새봄	김지하	남자
1-1-2	아버지의 유물 (한국문학총서)	서대석 엮음	불분명
1-1-3	어린 날의 초상	문혜영	여
1-1-4	이해의 선물	빌라드	남
1-2-1	마음으로 쓰는 편지 (우리들의 속 이야기, 쪽지)	김형모 엮음	남
1-2-2	어머니의 우산	장용희	남
1-2-3	국물 이야기	문형동	남
1-3-1	스스로 터득한 지혜	강희맹	남
1-3-2	현이의 연극	이경희	여
1-3-3	호수	정지용	남
1-4-1	내 나무	이규태	남
1-4-2	하회 마을	김세준	불분명
1-4-3	가정 교육의 어제와 오늘	김태길	남
1-5-1	소설 동의보감	이은성	남
1-5-2	육체미 소동	박정화	여
1-6-1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김용석	남
1-6-2	문자의 역사	세계의 문자 연구회	불분명
1-7-1	홍길동전	허균	남
1-7-2	30년 전의 그 날	강원룡	남
1-7-3	옥상의 민들레꽃	박완서	여
2-1-1	화가 이중섭	엄광용	남
2-1-2	먹어서 죽는다	법정	남

2-1-1	바다가 보이는 교실	정일근	남
2-1-2	소나기	황순원	남
2-1-3	섬진강 기행	김훈	남
2-1-4	동명왕 신화(출처한국의 대표설화)	이만기 엮음	불분명
2-1-4	지네장터(구비 문학)	서대석 편	불분명
2-1-4	우정의 길(한국인의 민담)	편집부 엮음	불분명
2-3-1	훈민정음 완성되다	역사신문 편찬위원회	불분명
2-3-1	한글의 우수성	정동환	남
2-3-2	우리 꽃 산책	이유미	여
2-4-1	봉선화	김상옥	남
2-4-2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김영랑	남
2-4-3	어떤 마을	도종환	남
2-4-4	우리가 눈발이라면	안도현	남
2-5-1	설화 속의 호랑이	최운식	남
2-5-2	도편수의 금지	이범선	남
2-5-3	통신 언어, 어떻게 쓸 것인가	왕문용	남
2-6-1	흰 종이수염	하근찬	남
2-6-2	숨쉬는 영정	구인환	남

<1학년 교과서 보충·심화·단원의 길잡이·읽기 전에 및 생각 넓히기>

학기- 대단원	제목	글쓴이	성별
1-1	틀니	박윤정	불분명
1-1	자장 노래 1	충청남도예산 지방노래	불분명
1-1	자장 노래 2	강원도고성 지방노래	불분명
1-1	4교시가 끝났다	이재윤	남
1-1	강아지 똥	권정생	남
1-2	어떤 손	최향섭	남
1-2	촌스러운 아나운서	이금희	여
1-2	한눈 없는 어머니	이은상	남

1-3	여우와 뱀	이솝우화	남/불분명
1-3	자료글(출처 어린왕자)	생텍쥐페리	남
1-3	자료글(출처 탈무드)	마빈 토케이어	불분명
1-3	호랑이의 권세를 믿고	조성기 엮음	불분명
1-4	자료글(출처 삼국지)	나관중	남
1-4	바보 의사 이야기	채규철	남
1-5	바람을 파는 소년	이준연	남
1-5	병어리 삼룡이	나도향	남
1-6	한글자모자의 이름과 순서	옥현진 집필진	
1-6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다	헬렌 켈러	여
1-7	삼대 독자	학생	여
1-7	아버지가 오실 때(학생작품)	하대원	불분명
1-7	엄마 걱정	기형도	남
1-7	시험 삼 일 전날	이상원	남
1-7	안네의 일기	안네 프랑크	여
2-1	키다리 아저씨	진 웹스터	여
2-1	35쪽 자료글	집필진(창작)	불분명
2-1	약을 팔지 않는 의사	김소경	여
2-1	비판 치료, 체질 따라 다르다	윤현주(기자)	불분명
2-2	너를 위하여	김남조	여
2-2	쿨뚝	윤동주	남
2-2	동강은 흐른다	학생 작품	불분명
2-2	가을 우체부	송명호	남
2-2	요람기	오영수	남
2-2	내 마음은	김동명	남
2-2	미리내	서정범	남
2-2	이사하는 날(쉼터)	이철수	
2-3	7월의 나리꽃	이유미	여
2-3	노벨상 이야기	샘이 깊은 물 편집부	불분명
2-3	땅 이름	남기심	남
2-3	농사말에 남아 있는 고운 우리말들	신경림	남
2-3	비오리	고진하	남
2-4	어버이 살아실 제	정철	남

2-4	봉선화 노래	김형준 작사	남
2-4	동기로 세 몸 되어	박인로	남
2-4	이모	윤정순	여
2-4	가을 소녀들	양정자	여
2-4	해	박두진	남
2-4	풀잎	박성룡	남
2-4	마을(김희보 편)	박남수	남
2-4	바람이 눈을 몰아(정병욱 편저)	안민영	남
2-4	연분홍 송이송이	김억	남
2-5	170쪽 자료글	이영희	여
2-5	추석의 민속 놀이	최상수	남
2-5	신문과 잡지의 구실	천관우	남
2-5	깨끗한 그릇	지성찬	남
2-5	첨단 과학의 가능성과 한계성	박성래	남
2-6	217쪽 자료글	동아일보기자	불분명
2-6	국토 11	조태일	남
2-6	우산 장수 할아버지	김철수	남
2-6	나비	헤르만 헤세	남

<2학년 교과서 본문>

학기- 대단원- 소단원	제목	글쓴이	성별
1-1-1	문학 작품의 감상	집필	불분명
1-1-2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정현중	남자
1-1-3	소음 공해	오정희	여자
1-2-1	읽기란 무엇인가	최영환	남자
1-2-2	개미와 말한다	최재천	남자
1-2-3	축복받은 성격	이시형	남자
1-3-1	서동요(삼국유사)	서동	불분명
1-3-2	슬견설	이규보	남자
1-3-3	토끼전	지은이모름	불분명
1-4-1	가정	박목월	남자

1-4-2	기억 속의 들꽃	윤홍길	남자
1-5-1	사전을 찾아 가며 읽는 즐거움	이순원	남자
1-5-2	잠은 왜 잘까	김종성	남자
1-6-1	나룻배와 행인	한용운	남자
1-6-2	사랑손님과 어머니	주요섭	남자
2-1-1	옥중에서 어머니께 올리는 글월	심훈	남자
2-1-2	창우야, 다희야, 내일도 학교에 오너라	김용택	남자
2-2-1	아기 장수 우투리		불분명
2-2-2	현명한 아내, 만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200가지 이야기)	조안나 콜 썬	불분명
2-3-1	지각	김현승	남자
2-3-2	들판에서	이강백	남자
2-4-1	국사 교과서	국사 편찬 위원회	불분명
2-4-2	과학교과서(혈액의순환)	이길재	남
2-5-1	딸에게 온 연애편지	오탁번	남자
2-5-2	비누 인형	김두필	불분명

<2학년 교과서 보충·심화·단원의 길잡이·읽기 전에 및 생각넓히기>

학기- 대단원	제목	글쓴이	성별
1-1	누에와 천재	유달영	남자
1-1	책상은 책상이다	페터 빅셀	남자
1-1	귀뚜라미	황동규	남자
1-2	우리 나라에는 책벌레가 없습니다	공익광고협회의 한국 방송 광고 공사	불분명
1-2	한국 청소년, '아시아 골초 금메달'	기자	불분명
1-2	소요산역엔 아름다운 마음이 있다	김민자 기자	여자
1-2	어머니의 저녁 식사(광고대회)	이요섭 외	불분명
1-2	어떻게 전시장 관람을 할까	가나 아트 편집부	불분명
1-2	우리 숲은 한민족의 자존심	전영우	남자
1-3	시조 1	정철	남자

1-3	시조 2	지은이모름	불분명
1-3	원수이면서도 필요한 까닭	이광정	남자
1-4	오줌싸개 지도	윤동주	남자
1-4	늦깎이 학생, 나의 어머니	윤지애 (학생작품)	여자
1-4	두 얼굴	정혜주	여자
1-4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다면	김소월	남자
1-4	신문 기사 세 편	동아일보기자	불분명
1-5	사람과 소나무	권오길	남자
1-5	비는 반드시 옵니다	주기운	남자
1-6	엄마야 누나야	김소월	남자
1-6	칠석날	곽재구	남자
1-6	동백꽃	김유정	남자
2-1	그날이 오면	심훈	남자
2-1	상록수	심훈	남자
2-1	작가의 말	김용택	남자
2-1	교실 창가에서	김용택	남자
2-1	농부와 시인	김용택	남자
2-1	나의 슬픈 반생기	한하운	남자
2-1	보리피리	한하운	남자
2-1	민들레의 연가	이해인	여자
2-1	꽃씨를 닮은 마침표처럼	이해인	여자
2-2	원숭이와 거북 이야기	바이다바	불분명
2-2	바리데기 바리데기 바리공주야	최래옥 역음	불분명
2-3	‘지각’에 대한 해설	최동호	남자
2-3	손에 손 잡고	김문환	남자
2-3	‘혼불’은 나의 온 존재를 요구했습니다.	최명희	여자
2-3	혼불	최명희	여자
2-3	어머니	김초혜	여자
2-3	홍보가	박봉술의 홍보가	불분명

2-4	기술·가정 교과서	이연옥	불분명
2-4	사회 교과서	김석언	불분명
2-5	여름은 아프다(학생작품)	정진희	불분명
2-5	연년생(학생작품)	김영민	여자

<3학년 교과서 본문>

학기- 대단원- 소단원	제목	글쓴이	성별
1-1-1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호승	남자
1-1-2	배추의 마음	나희덕	여자
1-1-3	낙화	이형기	남자
1-1-4	독방길	유재영	남자
1-2-1	표준어와 방언	성낙수	남자
1-2-2	현대 사회와 과학	김영식	남자
1-3-1	독서와 사회·문화의 만남	박인기	남자
1-3-2	원미동 사람들	양귀자	여자
1-4-1	지사의 길, 시인의 길	왕양용	남자
1-4-2	일레인 이야기	김영곤	남자
1-5-1	무궁화	유달영	남자
1-5-2	시집 가는 날	오영진 원작 박만규 극본	남자 남자
1-6-1	한국 현대 문학의 흐름	조남현	남자
1-6-2	가는 길	김소월	남자
1-6-3	깃발	유치환	남자
1-6-4	봄은	신동엽	남자
1-6-5	운수 좋은 날	현진건	남자
2-1-1	즐거운 편지	황동규	남자
2-1-2	성탄제	김종길	남자
2-1-3	길 잃은 태양 마차(그리스로마신화)	이윤기 역	불분명
2-2-1	신문과 진실	송건호	남자
2-2-2	눈으로 씹는 낄, 텔레비전	김규	남자
2-2-2	우리의 친구, 텔레비전	김기태	남자
2-3-1	내 생애 가장 따뜻한 날들	박동규	남자

2-3-2	어리석은 자의 우직함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 갑니다	신영복	남자
2-3-3	청춘 예찬	민태원	남자
2-4-1	한국 문학의 개념과 특질	김대행	남자
2-4-2	가시리	작자미상	불분명
2-4-3	시조	신흙	남자
2-4-3	사설시조	작자미상	불분명
2-4-4	박씨전	작자미상	불분명
2-5-1	대숲의 사계	김준호	남자
2-5-2	만해 한용운	김재홍	남자

<3학년 교과서 보충·심화·단원의 길잡이·읽기 전에 및 생각 넓히기>

학기- 대단원	제목	글쓴이	성별
1-1	토란잎에 궁그는 물방울 같이는	복효근	남자
1-1	봄비	이수복	남자
1-1	바다와 나비	김기림	남자
1-1	논개	변영로	남자
1-2	사투리	정목일	남자
1-2	58쪽 자료글	박만상	남자
1-2	한국인은 모두 가수	홍세화	남자
1-2	62쪽 자료글	이어령	남자
1-2	64쪽 자료글	강만길	남자
1-3	독립군가	대한민국임시- 1정부	불분명
1-3	아홉 살 인생	위기철	남자
1-3	섬마을 아이들	황용희	남자
1-3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조세희	남자
1-4	청포도	이육사	남자
1-4	김치는 왜 먹어야 하나	조재선	남자
1-4	한국어의 세계화	최길시	인터넷 웹진
1-5	하늘빛 청자	최순우	남자
1-5	진도 아리랑	민요	불분명
1-5	정선 아리랑	민요	불분명

1-5	월드 컵 축제를 넘어	중앙일보사설	불분명
1-5	향수	정지용	남자
1-5	풍란	이병기	남자
1-6	먼 후일	김소월	남자
1-6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김영랑	남자
1-6	235쪽 자료글	김홍규	남자
1-6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남자
1-6	데생	김광균	남자
1-6	동백꽃	김유정	남자
1-6	오발탄	이범선	남자
2-1	14쪽 자료글	인터넷	남자
2-1	동해 바다	신경림	남자
2-1	자전거를 못 타는 아이	장자크상페	남자
2-1	자화상	윤동주	남자
2-1	봄바람	박상률	남자
2-2	79쪽 자료글		불분명
2-2	94쪽 자료글	인터넷	불분명
2-2	96쪽 자료글	집필진	불분명
2-2	97쪽 자료글	기자	불분명
2-2	98쪽 자료글	집필진	불분명
2-2	99쪽 자료글(가)	김경일	남자
2-2	100쪽 자료글(나)	최병철	남자
2-3	공연한 걱정	김태길	남자
2-3	온달	김부식	남자
2-3	인디언 달력(류시화 옮김)	인디언들	불분명
2-3	7년간의 착각	김주환 위음(중학생의 글)	불분명
2-3	작은 운동장의 큰 가르침	정진권	남자
2-3	신호등	홍미숙	여자
2-3	일야구도하기	박지원	남자
2-4	168쪽 자료글(역대시조전서)아리랑	심재완편저	불분명
2-4	168쪽 자료글(뫼버들)	홍량	여자
2-4	만홍	윤선도	남자
2-4	삼각산 밑에서	신석초	남자

2-4	운영전-손가락에 잘못 떨어진 먹물 한 방울	조현설	남자
2-4	적성촌에서	정약용	남자
2-5	204쪽 자료글(가),(나)	한국문화유산 답사회 집필진	불분명
2-5	204쪽 자료글(다),(라)	집필진	불분명
2-5	그믐달	나도향	남자
2-5	조화로운 삶의 지속	헬렌 니어링· 스코트 니어링	남자 여자
2-5	230쪽 자료글(가)	한혹구	남자
2-5	230쪽 자료글(나)	인터넷	불분명
2-5	집에 대하여	박이문	남자
2-5	다듬이 소리	최은정	여자
2-5	창(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김희보	불분명
2-5	한국의 텃새	이우신	남자